

삼성, '유럽영상의학회 2023'서 친환경 부스 선보여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은 3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영상의학회 2023(ECR,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에 참가해 초음파, 디지털 엑스레이 등 다양한 영상 진단 기기를 전시했다.

삼성 의료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제품의 설계·생산·포장·전시 단계까지 친환경을 고려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초음파 부문에서는 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진단기기인 'RS85 Prestige'와 유럽에 처음 소개하는 'V8'과 'V7'을 내세워 기존 대비 더욱 선명한 이미지로 의료진들의 정확한 의사결정과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밀진단 기능들을 소개했다.

특히, 전립선 초음파 검사 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작은 크기의 프로브 'miniER7'을 선보였고, 지방간 진단을 위해 간의 지방량을 백분율로 보여주는 기술이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

※ 프로브(Probe) : 초음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부분

디지털 엑스레이 부문에서는 삼성 최신 카메라 솔루션을 적용해 지속적

환자 모니터링과 촬영 편의성을 높인 'AccE GC85A'의 Vision 기능, 3~4 시간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고 추가 충전 없이 약 10시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배터리가 적용된 'AccE GM85'과 기존 대비 27% 가벼운 디텍터(Glass-Free Detector) 등 사용 편의성과 이동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보였다.

※ 디텍터 : 엑스선을 감지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엑스레이 핵심 장치

삼성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신제품과 솔루션, 고객이 요구하는 진단 효율성·이동성·연결성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했으며 친환경 비전인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해 전시 부스를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전시대 등 친환경 부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삼성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제품 포장시 사용하는 스티로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와 골판지 적층재(Corrupad, 코러 패드)로 완전 대체한 완충 포장 구조를 개발해 작년에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겸 삼성메디슨 전략마케팅팀장 유규태 부사장은 "삼성 의료기기는 고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포장과 전시까지 탄소 저감, 자원 순환 등을 고려해 친환경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3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영상의학회 2023' 삼성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의 다양한 영상 진단 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 총력

전라남도는 오는 9일까지를 '탄소중립 주간'으로 정하고 심포지엄, 소등행사, 실천서약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2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탄소중립 주간은 '전남의 미래를 위한 실천, 탄소중립'을 주제로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중요성,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운영한다.

탄소중립 주간 첫날인 3일 도민과 함께 순천 신대지구에서 쓰레기 줄기를 하면서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는 플로깅으로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6일에는 전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오후에는 문금주 부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황성환 전남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식전행사로 해남 주민이 직접 연출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연극 공연과 미래세대 주역인 순천 선양유치원 어

린이의 탄소중립 실천 공연이 진행된다.

본행사에선 '탄소중립과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강연과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7일에는 도의회와 함께 '블루카본 활용을 통한 전남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음날인 8일에는 전남도와 도출자, 출연 17개 기관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천 협약을 한다. 이어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전남도 본청, 사업소, 시군, 유관기관 등 공공건물 소등행사를 하고 아파트와 기업 등 민간 건물의 자율 소등행사를 유도해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밖에도 시군,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도 지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서약,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운동,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환경 정화활동 등 자체 탄소중립 행사를 펼친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번 '탄소중립 주간'을 통해

탄소중립이 필수라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도민 모두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 줄이기 노력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1년 3월 3일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정해명기자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방, 과수 꽃 피기 전 제때 약제 뿌려야 효과적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 배 재배 농가에 화상병 예방을 위해 꽃 피기 전 방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배에는 꽃눈이 트 직후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 화합물(동제)을 뿌리고, 사과에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피지기 직전에 석회보르도액을 뿌린다.

사과에 석회보르도액이 아닌 다른 개화 전 약제를 뿌릴 경우, 각 약제의 적용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 약으로 인한 작물 피해를 막는다.

꽃 피기 전 약제 뿌리는 시기는 지역별 과수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은 3월 3일부터,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3월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꽃 피기 전 방제 약제는 총 11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정비용 약제를 배부하고 있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약제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

를 지켜야 한다.

꽃 피기 전 방제 약제로 주로 사용하는 동제를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 쓰면 안 되며, 동제를 뿌린 뒤 바로 이어서 다른 성분의 약제를 주면 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한다.

과수원에 석회유황합제를 사용하는 경우 3월 중순까지 살포를 완료하고,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개화 전 약제를 뿌려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작업자는 농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코와 입 주변을 완전히 밀착할 수 있는 산업용 분진 마스크와 보안경(고글), 방제복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작업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개화 전 방제' 이후, 꽃이 피는 시기에 '개화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 예측정보와 약제 품목에 따라 살포 시기를 알려 개화기 방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지성 과장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약제 살포에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성지아기자



Z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

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빛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으세요

맛

지역 특산물로 만든 맛있는 요리

영양 나들이

한길은 다가가수록 영양의 속삭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DARK SKY, citiusone,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의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침벽굴, 죽백수원,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김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합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남산자연유원지,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영양 나들이

영양나들이

영양나들이

김용일 서울시의원,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참석 '그날의 함성을 잊지 말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된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기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삼일절 기념행사는 4년 만에 전국적으로 재개됐으며, 특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경성감옥(京城監獄)으로 불렸으며, 1919년 거족적 민족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난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 참여자를 대대적으로 체포,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총 3,075명이 본 형

무소에 수감 됐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들은 갖은 취조와 고문이 원인이 되어 순국하신 분들이 있는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장소이다.

행사 당일에는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독립문을 향해 행진하는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독립선언서 낭독, 역사어린이합창단 공연, 태권도 및 음악 미니 콘서트, 다양한 만들기 등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삼천여 애국지사의 명패가 모셔진 독립관에서 한화하고 분향하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우렁찬 응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전하며,

일제의 만행에 대해 반인륜적이고 무모한 악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우리의 오늘이 있는 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귀한 희생을 해 주신 순국선열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때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의 우리가 순국선열께서 하셨던 그 일을 마땅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대대손손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3·1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지키는 것이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경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위 현장방문



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밀양의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와 김해 지역 기업체 케이피항공산업(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일자리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고졸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형 하이(HI)트랙사업의 현장점검 차 두 기관을 방문했다.

먼저 특위는 전국 유일의 나노 반도체 분야 특수목적고인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홍성환)를 방문하여 학교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최초로 구축된 반도체 제조 클린룸 등 실습 현장을 둘러

보았다. 또한, 학교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설명을 듣고, 고졸취업생 일자리 확충 및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학생 기숙사 신축, 우수교원 특별연수 예산 지원 등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 특위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인 우주사업, 항공기 부품과 기체 제작·조립 전문 업체로 세계적인 품질 수준과 첨단 생산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케이피항공산업(주)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기업현황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버스노선 확대 및 청년층 임대주택 확대(김해, 진례, 장유) 등 기업관계자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기업의 생산성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주봉한 특위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학교 및 기업체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졸취업생들의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에서는 일자리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신중년·청년·노인 일자리 관련 기관방문, 노인 일자리 기관방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방문, 일자리 정책 마련 대안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현/기자

파주시의회 이해정 의원,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전부 개정

파주시의회 이해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조례안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체계, 피학대 동물 관리,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입양에 대한 지원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해정 의원은 "파주시는 지자체 지역 동물 보호 시설이 없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효율적, 경제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파주시 인구 51만 명 중 동물 등록인구 약 2만 5천여 명의 반려인에 대한 파주시 반려동물 문화 교실 및 놀이터 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와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개최

9일~7일간 의사일정 들어가... 군정 전반 점검 및 대안 제시

예천군의회는 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6일 김홍년 안양숙 의원을 시작으로 7일 강영구 장삼규 의원, 8일 신향순 강경탁 의원, 9일 이동화 박재길 의원은 4일간 23개 실·담당관·과·소를 대상으로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비롯한 군정 전반

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를 위해 총 26건의 군정 질문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는 군정 질문을 통해 동료 의원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명확한 시정 조치 요구로 군정의 발전을 위한 효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지역에 크고 작은 산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도 재난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산발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9명 채용

용인특례시의회는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작년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9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여

의원 정수(32명)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용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면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정책지원관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

무실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윤원균 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의정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는 물론 의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는 난방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월 2일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윤태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달수 부위원장, 김재운·박종율·박종철·박진수·박희용·서지연·양준모·이승우 특별위원회 위원 및 부산시 공공요금 6종(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을 소관하는 부시장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를 부산시의 관련 분야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여건에 따른 향후 공공요금 운영계획을 청취, 이에 따른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요금과 관련, 이미 시민들의 가계부담 비중이 높은 수준인 만큼 요금 인상보다는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송준진/기자

윤태한 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각종 공공요금 상승으로 민생경제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시의회 정당별 정책간담회..."협치·상생"

성남시는 시의회와 정당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협치와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월 28일 관내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3월 2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신시장은 성남시의회와 당 대표의원, 정당별 시의원들과 성남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상황,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경기도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성남 개최 등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

각 사안은 시 집행부와 조율·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 정당을 초월한 협치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계층별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성남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성윤/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말 중대선거 이후 집행부와 시의회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첫 소통 자리라 의미가 크다"면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280회 임시회를 포함해 올해 총 8회기의 의사일정이 더 남아있으니, 힘드시더라도 성남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34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대선(112)	문화부:대선(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113)	부동산부:대선(117)
	경제부:대선(114)	오피니언부:대선(118)
	스포츠부:대선(115)	지방부:대선(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현 인천 중구청장, 농업인들과 농정발전 지혜 모아...소득증대방안 등 논의

김정현 인천 중구청장이 농업인 소득증대 등 중구지역 농업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해 관내 농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2일 중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현 중구청장 주재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 등 중구 농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현 구청장, 장석주 농촌지도자 중구연합회장, 김택수 농업경영인 중구연합회장, 이선경 생활개선 중구연합회장 등 농업인단체 대표 14명과 도시농업과장, 민지현 중구농업인상담소장 등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구의 2023년도 농정분야 주요 사업 설명과 함께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이날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농업 현장

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구는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해 2023년도 농정분야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호응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 중구는 도시근교농업 지원사업, 여성친화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등 올 한해 중구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927개 농가에 12만4천여 포를 공급 중이다. 아울러, 가뭄 대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익 창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의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남/기자

인천 남동구, 적극행정 빛났다...행안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천시 남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개선, 기관의 노력 및 우수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남동구를 비롯한 74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참여했다.

남동구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우수공무원 선발, 주민체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에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구는 지난해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에 직원 설문조사와 온라인 구민 투표를 새롭게 도입하며 내실 있고 투명한 과정을 거쳤다.

실제 남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에서 우수상을 받은 '남동 통신이(코로나19 통지서 대량 자동발송 시스템)'는 전국 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대통령상)을 받는 큰 성과를 거뒀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방문 '해결방안 모색'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공사관계자와 삼성산단 주변 쓰레기 관리방안 논의 지속 당부



정장선 평택시장은 2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 고덕 삼성산업단지 일원 무단투기 현장 방문에 나섰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일원의 무단투기 현장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외 주차장,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매일 많은 양의 담배꽂초와 생활 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이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버려지는 대부분 쓰레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관계자인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 등과 쓰레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공사 주변

현장을 무단투기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이일부터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등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현장을 방문한 정장선 시장은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오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늘 현장을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경기도 김동연 "해양레저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만들 것"

2023 경기국제보트쇼 3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서 "해양레저 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1년에 한 번이라고는 낚시 가는 인구가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낚시박람회와 경기국제보트쇼가 함께 열리게 돼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해양레저 시장 규모는 제1회 보트쇼가 개최된 2008년 이후에 약 35배가 성장했다. 육상교통에서의 하이테크 기술이 해양레저산업로까지 적용되면서 세계 해양레저산업 소비시장 진출 기회도 크게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4차 산업의 허브다. 정보기술(IT)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모든 새로운 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산업의 모든 심장이 경기도에 있다. 동시에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 소비시장이자 해양레저 활동의 최적지"라며 "하이테크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양레저 분야의 친환경 하이테크 성장을 견인하길 기대한다. 이는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

의 장이 열리고 있다. 모든 중요한 산업, 기업, 새로운 인력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해양레저 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저변확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열린 행사로 올해로 16회째를 맞는다. 국내 최대 낚시 전시회인 한국낚시박람회와는 2022년부터 동시 개최해오고 있다.

작년 대비 1.5배 넓게 확보한 3만 2,157m2 규모의 고양시 킨텍스(KINTEX) 실내 전시장에서는 세일링 요트·고무보트·서프보드 등 150여 척의 레저 선박, 엔진·부속·차량용 견인 장치 등 장비·용품과 카라반·캠핑카 등 해양레저관광과 접목한 대중 아웃도어 제품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친환경 특별관이 운영된다. 상용 선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인 자율운항 기술의 레저 선박 적용 가능성과 비전 제시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가 참여하는 한편, 시험용 선박도 행사장에 옮겨 전시할 예정이다. 전



기 엔진·배터리 등 친환경 레저 선박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강소기업 제품도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대중에게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바이어의 대면 상담도 재개된다. 상담회는 사전 신청·조율을 통해 온라인 영상회의로도 진행되지만,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해외기업이 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국산 레저 장비 업체를 둘러보고 구매·계약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양레저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선도의 기회', '안전한 해양레저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레저 교육의 중요성' 등의 국제컨퍼런스와 '세일보트 엔진 알아보기' 등 40개가 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오픈컨퍼런스가 세 개의 컨퍼런스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최은정 낚시프로의 도슨트 투어'와 '루어낚시 기술 및 캐스팅 시연' 등 대형플랫폼 체험 이벤트가 다양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계획과 내용은 경기국제보트쇼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주영·김승수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이시원 해양정책관 및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김오영 한국낚시협회장, 서태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총장, 이덕화 해양수산부 낚시홍보대사, 우일국 대우조선해양 상무, 김현조 삼성중공업 상무,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및 장대석·박명원·이오수·이은주·임상오·최만식·오준환 도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3일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3일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장대석(더민주, 시흥2)·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이오수(국민의힘, 수원9)·최만식(더민주, 성남2)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시신 김동연 지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와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바다와 레저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킨텍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국마리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5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실시된다. 총 200개 사 1,300여 부스가 참여하며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 미래 건강엔 아낌없이!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 확 늘렸다

급식비 440억원·친환경농산물 급식 47억6500만원 등 487억 6500만원...작년보다 7.18% 늘어

용인특례시는 2023년 학교급식 지원으로 총 487억 6500만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455억원보다 7.18% 증가한 규모다.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학교급식비(440억원)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47억 6500만원)으로 나뉜다.

학교급식비는 학부모의 부담없이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교육기관에 따라 급식경비를 각기 다른 분담 비율로 지원한다.

관내 공립유치원 102곳과 농촌지역 초등학교 2곳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하고, 특수학교 2곳은 도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은 용인특례시(36%), 경기도(14%), 경기도교육청(50%)으로 분담한다.

시가 지원하는 440억원은 사립유치원 56곳, 인가대안학교를 포함하는 초·중·고등학교 165곳 등 관내 학교 221곳에 재학 중인 13만 119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47억 6500만원을 편성했다.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관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GAP·마크 등 우수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소한 향기로 입맛을 돋게 만드는 용인산 참기름과 들기름도 학교 급식에서 사용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김치류, 떡류, 두부류만 가공식품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시는 용인에서 생산된 참깨를 주원재료로 만든 참기름은 공급가격의 30%를, 용인에서 생산된 들기름과

고춧가루는 공급가격의 20%까지 지원한다.

용인 외 지역에서 생산된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는 각 공급가격의 15% 지원한다. 시는 국산 식재료 가격 부담을 낮춰 각 학교에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 공립유치원 5곳, 특수학교 1곳, 초·중·고등학교 161곳 등 167개교가 지원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4.16민주시민교육원, '4월 기억, 꽃으로 피우다'

4.16민주시민교육원(원장 전명선)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4월 기억, 꽃으로 피우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민주시민교육원은 참사의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교육을 위해 ▲단원고 4.16 기억교실 탐방과 정화 활동 ▲종이꽃 만들기와 헌화 등의 제

협활동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운영하며, 평일은 16시부터 18시, 주말은 10시부터 12시, 14시부터 1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6일부터 온라인(https://naver.me/GjGpIXnk)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누리집(www.goe416.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전명선 원장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월호 참사가 9주기가 되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사를 기억하고, 아픔을 넘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방세환광주시장, 염태영부지사에 “도로, 복합 건축물 등 인프라 구축 예산지원” 요청

방세환 광주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광주시의 도로, 건축물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시 현안사업인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광주 종합운동장, 신원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총 90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약속을 염 부지사에게 당부했다.

현재 광주시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는 극심한 상황이다.

인구와 자동차는 늘어나는 데 반해 상수원 보호 규제로 묶인 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도로 등 개발은 제한된 탓이다.

시 인구는 올 1월 기준 40만 2,527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월의 28만 5,336명에 비해 41%가량 급증했다. 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하여 2020년 기준 등록 대수가 20만여 대를 기록했다.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도로 확·포장을 위한 예산 및 협조 요구

시는 성남-광주 간 도로인 지방도 338호선 2공구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난 2003년 11월 경기도 투·융자사업 및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50% 지원으로 조건부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난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어려워져 대부분 시비 투입이 추진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방 시장은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염 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4월경 2차수 시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연차별 사업비 예산 확보와 관련 부처 협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해당 도로 중 무감~광동 간 도로개설 시 설계 반영을 건의한 원당리~정지리 구간 내 보도설치는 주민통행 안전을 위해 조속한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다.

◇ 체육복합건축물 등 건립 및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건의

방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복합건축물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염 부지사에게 지원을 당부했다.

광주 종합운동장과 신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에 각각 30억 원씩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30억 등 총 9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청했다.

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둔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비용 조달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종합운동장 역시 오는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금년도 소요 사업비 300억 원 중 시군비 부족분 30억 원을 염 부지사에게 지원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 종합운동장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화합을 위한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종합체육대회의 ‘광주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

신원 문화체육복합센터도 사업

예산 적기 확보를 위해 부족사업비 210억 원 중 30억 원을 특조금으로 지원 요청했다. 해당 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500억 원가량이다.

염 부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광주시 현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방 시장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의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수원시 카카오톡 '더하기 쿠폰', 혜택 더 풍성해졌다

수원시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 카카오톡 더하기 쿠폰 이벤트’ 혜택이 더 풍성해졌다.

수원시 카카오톡 더하기 쿠폰 이벤트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수원시’와 친구를 맺으면 수원시 주요 관광지, 문화공연, 스포츠 경기, 인근 도시 관광시설 등을 무료·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더하기 쿠폰 이벤트’ 홍보물에서 쿠폰을 내려받은 후 제휴시설 대표소에 쿠폰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그달 안에 사용해야 한다.

무료·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4개 분야 17개소에 이른다. 수원시의 대표 관광지인 화성행궁은 무료 입장할 수 있고, 수원시립미술관은 50%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아쿠아플라넷 광고는 동반 1인까지 관람료를 20%(연간이용권 13%) 할인해준다. 5월 개원 예정인 영흥·일월 수목원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립합창단·수원시립교향악단·수원시립공연단 공연 관람료는 20% 할인받을 수 있고, CGV 수원·북수원·동수원·광교는 2D 영화 2000원 할인 쿠폰(본인 포함 2인)을 제공한다.

수원FC(일반석)·수원삼성블루윙즈(EN자유석)·kt 위즈(스카이존 일반석)·수원KT소닉붐(일반석 A.B 경기) 경기 관람료는 2000원(일반석 기준), 한국전력빅스툼 배구단 경기(일반석) 관람료는 3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실스테이트 배구단은 다음 시즌 개막(10월)부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료 할인 혜택은 월 1회 받을 수 있다.

인근 도시 관광시설도 ‘더하기 쿠폰 이벤트’에 함께한다. 광명동굴은 관람료 20%, 오산버드파크는 입장료 3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의왕 레일바이크는 2인승 3000원·4인승 4000원(평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카카오톡 더하기 쿠폰 이벤트’는 수원시 참여시설 홍보와 관광객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2022년 더하기 쿠폰 제휴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홍보효과 만족도는 91%에 달했고, 82%가 이벤트 후 방문객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 모든 협력업체가 제휴 연장 의사를 밝혔다.

3월 3일 현재 수원시의 카카오톡 친구는 41만 6300여 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다. 수원시와 ‘카톡 친구’가 되려면 카카오톡 앱 ‘친구’ 화면 상단 오른쪽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수원시’를 입력하고,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수원시와 카톡 친구가 되면 더하기 쿠폰뿐 아니라 수원시 소식과 관광·축제 정보, 재난·긴급상황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시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더 풍성하게 제휴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제휴업체를 계속 발굴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소상공인 이차차액보전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화성시가 관내 12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차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일 오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자와 화성시 관내 12개 은행 지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상공인 이차차액 보전 지원’ 업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 후 발생하는 이차차액의 2%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지난 4년간 총 12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관내 5,592개 업체에 1,136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했고 관내 14,994개 업체에 대해 36억 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줬다.

특히, 화성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출 보증 기간 및 이차차액보전 지원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이차차액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산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에 동참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이차차액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안양시민축제 우선범 '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3년 연속 '대상' 수상

최대호 시장 “시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 관광 축제 만들 것”

2022년 안양시민축제 우선범 ‘춤’이 제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예술·전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20,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양시는 지난 2일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우선범춤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 수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축제·문화예술·관광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축제의 기획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선범춤은 연령,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을 주제로 한 예술문화 축제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2022년 우선범춤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시민에게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제1회 크라운 컴페티션(KR:OWN COMPETITION) K-POP 퍼포먼스대회’를 개최해 전국의 댄서들을 안양으로 모으는 등 춤의 콘텐츠를 부각시킨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선범춤은 지난달 27일 ‘2023 경기관광축제’에도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우수 축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개최되는 경기도 내 35개 축제를 평가해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23개 축제를 ‘경기관광축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축제에는 평가순위에 따라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우용/기자

안성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도입 협약체결



안성시는 지난 3월 2일, 네이버(주)와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안성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온(溫)택트 안성’을 추진하고자 네이버(주)의 AI 기술을 접목한 돌봄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주)에서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기반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 1회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약 2분간 대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대상자의 지난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통화에 활용하는 ‘기억하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개인 맞춤형 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고독사 예방을 넘어 건강, 식사, 수면, 운동 등 일상적인 돌봄도 가능하다.

이날 참석한 네이버 관계자는 “클로바 케어콜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고도화 하여 앞으로도 사람을 뛰어넘는 AI를 개발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모두를 위한AI’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안성시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과 사업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관악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과 착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관악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사업'의 공모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판로 부족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기반 확충이 필요한 시군구의 민·관 협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청소년 대상 인식 확대 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분야 교육과 기업 탐방, 모의창업스쿨 등을 진행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강화, 사업모델 개발 등의 체험을 제공하며,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일자리창출 협력, 인턴십 운영으로 인력난과 취약계층의 취업난 모두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구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불황으로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총력에 나르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과의 상생은 목표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판로지원 및 홍보강화 ▲인적자원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의 4대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협업사업 개발 등의 기업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한다.

사회적경제의 씨앗인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특히 지난해 11월, 3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회적경제장터 품시장'을 12회까지 확대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온라인 품시장'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도시락 먹는 날'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분야 우수군매출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이루다 창업공작소' 운영,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등 사회적경제 문화 확산과 메이커 창업 토대 마련에도 힘쓰고, 기업별 모니터링으로 공동의제 개발과 협업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경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시, 15개 자치단체와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추진

광주, 경북 등 15개 우호교류협약 자치단체를 상호 방문하여 지역 역사문화프로그램 참여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2023년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은 우호교류협약 자치단체와 서울시의 청소년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및 전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15개 자치단체, 교류 청소년 1,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12개 자치단체 중 11곳 사업이 중단됐으며, 2022년에는 10개 자치단체, 청소년 614명만 교류했다.

서울시는 오는 9일까지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단체는 교류 자치

단체 중 1곳과 협력하여 교류일정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 이후 각 운영단체에서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운영단체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중 청소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또는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이며,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청 청소년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번 교류사업의 운영단체 공개모집 접수 제출서류 및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공공'란의 '2023년도 서울-지역 청소년역사문화교류사업 공개모집 공고'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청소년 체험활동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번 교류사업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

상을 벗어나 낯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월세 계약 걱정 NO...영등포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난해 9월 시범사업 시행...약 4개월간 119명 서비스 지원

영등포구가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 1인 가구 수는 64,000명이다. 그중 47,445명(74.1%)이 전월세에 거주했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전월세 거주자는 29,272명(61.7%)에 달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사회 초년생, 생애 첫 계약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동시에 강릉 전체,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됐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동산 가격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중간중개사를 주거안심메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

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의 4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안심메니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계약 유의사항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나 홀로 집을 보러 가기 불안한 1인 가구와 직접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 외부 상태 등을 조연하고 필요시 계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약 4개월간 119명을 지원했으며, 그중 사회 초년생 및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가 103명(87%)에 차지했다.

구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주거안심메니저를 통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에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는 주거안심메니저와 일정 협의의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봉순 복지정책과장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가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전·월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1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금천구의 '스타'가 될 준비 되셨나요?

제12회 나도스타 금천 아동·청소년 노래부르기 대회

예선 2023. 4. 12. (수) 노래영상심사
본선 2023. 5. 10. (수) 오후 3시 금나래아트홀

대상 2023. 3. 3. (금) - 4. 7. (토) 예선 반주음악가(연령: 3.3. (금)~3.24. (토))
대상 금천구 거주 아동 또는 장애인(만5세~만15세)
대상부 분 인제학 / 초롱초롱(시, 고학년) / 초롱초롱 / 송희
대상부 분 금천구립 금나래초등학교(OR305) 이태일 또는 방원익(금천구립 7층 아동청소년교) blou13@guncheon.go.kr
문의부 분 금천구립 아동청소년센터(02-2627-2845)

금천구

성동구,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서울 성동구가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 절개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3월 15일까지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2~4월)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시기이다. 특히 다음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성동구는 붕괴, 전도,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형·골도 공사장, 급경사지, 옹벽·석축, 노후건축물, 교량·제방 등 관내 해빙기 취약시설물 171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건축, 토목, 안전 등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및 급경사지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발견된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송파 취업 정보를 한 곳에! 송파형 통합플랫폼 구축

기존 일자리 정보 시스템...단순 링크 기능, 정보 양과 질 부족

송파구가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구는 2019년 구청 누리집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메뉴를 신설해 성별, 연령별, 제공기관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기관 링크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 소개에 한정되는 등 정보의 양과 질이 부족해 구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서비스 제공 방향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는 6월부터 '송파구 일자리' 누리집을 새롭게 운영한다. "찾기 쉽게 한곳에 모여서! 찾기 전에 먼저!"를 기본 방향으로 취업정보의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송파구 일자리' 누리집에는 송파여성경력개발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송파시니어클럽 등 관내 총 21개 일자리시설 정보가 등록된다. 시설별, 대상별, 사업별 검색 기능을 추가해 추가 접속 없이 바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역량교육, 직업기술훈련, 고용지원금, 기업지원제도 등 일자리와 관련한 폭넓은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특히, 구는 누리집 시스템 구축을 전문 업체가 아닌 구청 첨단도시과를 통해 추진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주민 필요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SNS 일자리정보 채널도 확대, 개편한다. 3월부터 기존 '송파구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송파구 대표 일자리 SNS 채널'로 바꿔, 21개 시설 정보를 모아 수시로 제공한다.

또 월 1회 '일자리 특특' 뉴스를 발송하여 주요 채용정보와 함께 각종 일자리 행사, 프로그램 소식 등을 전한다. 이 밖에도 '일자리시설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자리시설 담당

자와 실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유,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취업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일자리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송파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선8기 목표인 일자리 4만3천 개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금천구는 3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제12회 나도스타 금천 아동·청소년 노래부르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도스타 금천 아동·청소년 노래부르기 대회'는 아동·청소년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5세 이상 만 15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 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동창(저학년, 고학년) △ 초등학생 중창 △ 중등부 총 5개로 나뉜다. 참가곡은 3분 내외 동요 또는 가곡 장르 자유곡 1곡이다. 반주는 피아노만 할 수 있으며, 예선은 무반주로 참가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신청할 경우, 반주 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4월 7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노래 영상, 반주 악보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구청 7층 아동청소년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4월 12일 예선으로 노래 영상 심사를 거쳐, 5월 10일 오후 3시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본선 경연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숨은 기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경쟁보다는 다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회에 참가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용인특례시, 룸카페 등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용인 동부·서부 경찰서 및 3개 구청과 불시 합동단속...3월 8일까지

용인특례시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룸카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대부분 칸막이 등으로 나눠 놓은 밀폐된 공간에 침구와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8일까지 용인 동·서부 경찰서, 각 구청(처인·기흥·수지) 위생지도팀 등과 합동으로 관내 운영중인 룸카페·멀티방·보드게임 카페·만화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

해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최근 자유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신·변종 시설들이 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청양군,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청양군이 오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건설 현장과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를 대기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3월에는 충남도 합동점검을 통해 대형 건설업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저감

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세륜·세차 시설 정상 가동) 등이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미이행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용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서울시, 계절관리제 세 달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32개소 적발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1.~'23.3.31.) 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등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수사 및 고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대기질 관리를 위해 시행됐으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비산먼지는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의 24%를 차지한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 위해성도 높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출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98개의 사업장을 점검해 3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유형별로 ▲건설공사장 10개소,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개소, ▲귀금속제조사업장 7개소,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개소다.

(건설공사장) 주요 사례를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한 건설업체는 철골조 야외절단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진장비를 설치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 다른 주택 밀집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 작업을 진행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금속표면처리시설) 시는 도금업체 등 금속표면처리 사업장이 모여 있는 구로구 문래동, 성동구 성수동, 금천구 독산동 일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도금작업 시 세정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철강과, 도금작업 전 금속의 품질을 높이고자 염산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면서 방지시설 가동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금속 등을 적발했다.

(귀금속제조사업장) 종로구 봉익동에는 세공소 등 귀금속제조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금, 은 등의 용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00주물 등의 업소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시설) 시는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단속도 진행했다. 성동구 용답동의 00자동차복원은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활성탄 등을 갖춘 흡착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 적발됐다. 그 밖에도 대기오염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도장시설 등 총 9개소가 단속반에 적발돼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12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사업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및 제89조제3호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으로 가동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라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파주시·파주경찰서 성매매집결지 단속초소 설치 및 고강도 단속 예고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파주읍 연풍리 299-88번지 일원 성매매집결지 내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성매매 행위 순찰·단속 등에 돌입했다.

그동안 시와 경찰은 성매매집결지 내 통행량이 많고, 성구매자가 가장 활발히 유입되는 곳을 분석하여 초소를 설치했으며, 이 구역을 중심으로 근무인력을 배치해 순찰 및 청소년 안전활동, 성매매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1월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시는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집중지원을, 경찰은 해당 성매매집결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소방은 화재안전점검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초소 설치로 불법 성매매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으며, 파주시



를 비롯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성매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없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

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초소는 성매매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집중 운영되며,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에서도 합동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드라이아이스 세척 / 무균세척 및 소독
각종 기계장비 및 설비 청소·대행 전문기업 (주)금창

공장설비/기계	전자/전기	건물/냉동/세탁설비	운송차량(선박)	무균세척
발전소/소각장/자동차화물비정소	전자/냉동/세탁설비	대형 건축물/내·외벽 청소/세탁설비	전철/트럭/선박설비 청소	학교/유치원/병원/사무실/자동차 실내 무균세척

드라이아이스 세척원리
 온도 2mchs를 가진 드라이아이스(결빙(3mm))의 분사 (메이킹력 Star)에 의해 300~800m/s의 속도로 이동할때 충돌 금속표면의 세척대상과 얼음이 온도로 인해 열충격이 가해지며 드라이아이스의 물성으로 인해 800배로 팽창되어 오জে, 이물질을 박리시킨다. 이어 압축공기에 의해 이물질을 흡기 없이 제거된다.

드라이아이스 세척의 안정성
 드라이아이스(결빙 2mchs, 온도 -78℃)의 세척대상물에 분사 발생되는 응력(stress)과 변형, 표면마모에 대해 순간적인 열충격량은 금속 및 비금속의 열팽창과정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변화와 마모를 일으키지 못한다.

드라이아이스 세척의 장점

간접세척	세척 후 즉시 사용	편리한 세척
최소비용	산업 모든 분야에 적용	2차 오염물 발생 억제

클리닝서비스 분야

전기/전자 설비세척	소각장 플랜트 세척	선박 세척
프레스 세척	목재건축물 세척	특수설비 세척
건물외벽 세척	유치원 무균세척및소독	학교 무균세척및소독
병원 무균세척 및 소독	사무실 무균세척및소독	자동차 무균세척및소독

예비 高1,2,3 대상
SKY대 합격 및 수능만점 필수영어
2개월 단기 완성

열공 Study Cafe 무료 사용!
 가장 어려운 영어 가장 쉽게 배우는 비법!
 40년 경력 박사 직접지도
 수강료 후불제

skymt.kr
 지금 바로 skymt.kr를 검색해보세요

SKY대 쉽게 가는 길!
SKY멘토스쿨
02-897-2050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새롭고 행복한 경기도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져습니다!

경남도, 공군교육사령부와 우주항공산업 협력방안 논의

3일 유재문 공군교육사령관, 우주항공 논의 위해 박완수 도지사 예방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일 오후 도지사 접견실에서 유재문 공군교육사령관과 경남 지역의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와 공군교육사령부가 우주항공산업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문 공군교육사령관은 경남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민군 우주협력 방향과 '경남지역 우주발전 협의회' 추진현황을 설명한 뒤, 정주여건 조성 과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도의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인력육성과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우주경제 비전을 6월까지 제시할 것이다"며 "우주항공산업에 있어 공군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경남

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공군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군교육사령부는 1973년에 창설됐고, 1988년 경남 진주로 이전해 '국가방위의 초석, 항공우주군의 핵심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정예 공군인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우주통제학교 창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 장교와 부사관, 병사 등을 대상으로 우주통제, 관제, 우주감시·기상, 무인항공기 조종 및 정비 등을 교육하게 된다.

이로써 우주교육기관이자 경남의 대표 군 우주기관으로서 우주전문인력 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재현기자

경북도, 산불 비상! 특별기동단속 나섰다

산불기동단속반 수시 운영, 산불방지 지역책임관 제도 실시

경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도내에 수일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ha의 산림 피해를 입었으며 당분간은 비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기동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물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이 94%로 대부분 검



거대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

시간에 큰 산불로 변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면서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 기술서비스 고객만족도 상승

2022년도 신약개발 기술 서비스 자체 고객만족도 89.5점으로 전년대비 1.4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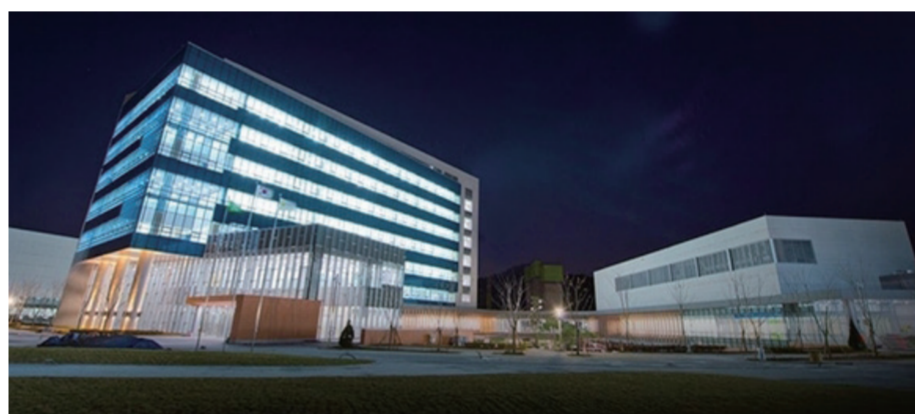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신약개발 기술 서비스의 간편한 의뢰 절차, 합리적인 가격,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로 의뢰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국내 대학, 출연(연), 기업을 대상 초기 신약물질의 최적화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공백기술을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대상 매년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2년도 기술 서비스 조사는 2021년도 평균 88.1점에 대비 1.4점 상승한 89.5점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안전성평가, 약동학평가, 비임상지원 분야 등 512건의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전경

기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해당 서비스 규모는 연평균 54%(지원건수), 64%(지원금액)의 성장률을 보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간편한 의뢰 절차, 실험시간, 사후 피드백, 비용, 원활한 진행 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국내 산·학·연·병 대상 공백기술 지원을 통해 의뢰기관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케이메디허브의 보유 기술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남구 지방세 환급금,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산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제경정 등의 이유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 남구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는 정부 24, 위택스, ARS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 채널(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환급)을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고 간단하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에 지

방세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추후 지방세 환급금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납세자의 환급 계좌로 신속하게 이체된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정부24, 위택스, 카카오톡채널(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환급)을 통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한 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다. 앞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사천가지 맛과 낭만, 사천에 머물다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참가자 모집(1차)

사천시는 사천에서 머물며 사천가지 맛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1차 참가자를 오는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경남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12팀(팀당 1~2명)이다.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팀별로 최소 2박에서 최대 29박까지 1박당 5만 원 이내의 숙박비와 1인당 5~8만

원 이내의 체험비를 지원한다. 단,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참가자에게는 사천에서 자유여행을 진행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사천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번 사업은 지원동기, 여행계획의 충실성, 홍보효과성 등을 평가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SNS 활동이 활발한 청년(만 19~34세)과 구독자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한편,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인 사천시를 집중 탐구하고, 오감으로 느낄수 있는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연간 3차례에 걸쳐 참가자를 모집한다.

박동식 시장은 "소규모 도시 등 숨은 관광지에 대한 '생활형 지역관광' 형태의 국내 여행 트렌드에 맞춰 장기체류형 여행 지원사업을 통해 머무는 관광지로 사천관광 이미지를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경산시, 평생학습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장



경산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읍면동 평생학습강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읍면동 평생학습 강사 및 찾아가는 이동학습관 강사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

하고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해결 방안 모색하는 등 상호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평생학습의 최일선에서 '배움의 신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강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강사님들과 꾸준한 소통으로 평생학습 현장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강사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산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이동학습관' 증설과 '하양 행복학습센터 개소', '동네배움터-남중지추(囊中之錘)'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원하는 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 학습관은 오는 6일 개강하며 그 외 강좌는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송광삼기자

대구시 남구, 명품행복도시 남구가 이어갑니다

슬기로운 서비스인 생활, 남구청 미소친절 감성교육

대구시 남구는 2일, 남구청 드림 피아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미소친절 감성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초청된 비하이퍼교육원 이슬기 강사는 '슬기로운 서비스인 생활'이라는 주제로 민원응대직원의 유형을 통해 나의 서비스 현 위치를 점검하고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를 통해 서비스 마인드를 바로잡음으로써 구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의 펼

쳤다.

앞으로도 남구청은 민원서비스 향상교육, 친절마일리지제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 미소친절 데이(DAY) 캠페인 실시 등 공무원 미소친절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소친절 대구남구 만들기에 힘쓸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구정을 펼치기 위해 전직원이 친절행정 실천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50주년 기념 한국 공연
지저스 크리스티스 슈퍼스타
위대한 음악 - 전설의 노래
2023.3.4~5.5pm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중부홀
4시간의 위대한 음악의 경이로운 여정
같은 시간에는 4시간 공연 기념 기념품

영양군 무창리 산불화재 발생해

- 영양산불화재, 군·관·민 합동으로 4시간만에 진화돼
- 산정상에 설치된 GS제1풍력단지, 완벽한 진화 차단선 역 톡톡히
- 산림청관계자, “영양군과 같이 화재 진압에 적극적인 지자체 처음”

지난 3일 14시 11분경,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766번지 지점에서 발화된 불이 대형산불로 이어져 경북도청, 산림청,군을 포함 8대의 헬기과 영덕산림청 전상우 소장의 산불진화대 및 산불현장 실시간 진화제크 통제팀, 군부대, 영양군 소방대, 인접군 소방대, 오도창 영양군수 이하 400여명의 공직자들과 자원봉사 70여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투입돼, 3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80% 완료해 위험 수위를 한껏 낮추었고, 18시경 사실상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며, 18시 20분경 30ha의 손실을 입히며 산불진화가 완료됐다.

취재진은 14시 15분경 산불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지점으로 출발전 14시 15분부터 18시 50분까지 현장에서 산불진화 과정을 실시간 취재했다.

이날, 산불 발생 후, 1~2시간 동안 강풍으로 삼시간에 확산됐고, 진화초기, 헬기 1대로는 산불진화가 매우 어려워, 소방헬기 추가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영팔 소방본부장의 발 빠른 조치로 추가 헬기가 지원됐고, 이어 산림청 헬기 등 6대가 추가로 지원돼, 군 헬기

까지 총 8대가 투입, 조기진화를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날의 산불화재는 강풍과 급경사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 3시간 만에 80% 주불을 진화했고 4시간만인 지난 3일 18시 20분경 완료됐지만, 흑역 잔불씨가 바람에 의해 추가 발화될 것에 대비,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영양소방대가 산불 진화를 위해 GS제1풍력

단지 내, 잔불 제거를 위해 야간 계속 현장 진화를 했고, 우발 대비, 출동한 헬기 8대중 3대

를 군 공설운동장에 대기시키고, 1대는 다음날 06시경 긴급시 출동하기로 조치 후, 철수했다.

다음날 06시, 소방, 군, 경찰, 영양군 합동 긴급대책회를 개최해 모든 영양군 산불화재가 완전 진화 됐다고 발표했지만, 산불은 숨어 있는 불씨가 있을 위험성이 커, 아침부터 소방헬기는 산불지역 물 뿌리기, 진화대들은 계속 불 난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였고, 인접 군부대 100명이

혹시나 있을 잔불진화에 투입됐는 등, 군·관·민 모두가 산불진화에 완벽을 기했다.이에 취재진은 같은 날 군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16ha을 태우고 5시간 30분에 주불 진화가 어느정도 된 것에 반해 영양군 산불은 30ha을 태우는 대형산불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80%, 4시간만에 산불진화를 완료하고 이렇게 지난 4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을까?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취재하면서 살펴

봤다. 취재결과, 최초 발화지점에서 삼시간에 확산돼 GS풍력 1단지가 위치한 무내미 방향으로 넘어갔고, 화염으로 연기가 자욱한 풍력단지는 비록 불이 타고 있었지만, 풍력단지 덕택으로 더는 확산되지 못하고 소강상태로 빠지게 돼, 헬기에서 떨어지는 물 폭탄과 특수구조팀을 포함한 전문 소방인력팀이 진화를 하므로써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산불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었음에도 빠른 시간내에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곳 정상에 설치된 GS제1풍력단지 덕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진화작업을 하고 풍력단지 설치지역인 위에서 진화하므로써 더 이상의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자칫 30ha이 아니라 풍력단지가 없었다면 모르긴해도 수백 ha의 산불피해가 있었을 것이라 예견됐다.

이날 진화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풍력단지가 산불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화선을 구축한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은 최대의 효과였다”고 말하듯이 이날 강풍과 함께 확산된 산불화재는 GS제1풍력이 주변 정리와 지역민들을 농사지으라고 공짜로 제공한 밭에 밭갈이를 해놓아 불이 넘어갈 확률을 제로화 시키기때문에 완전한 차단선이 형성된 것이 산불 조기진화에 최대 효과역을 톡톡히 해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산불진화에 직접 효과는 8대의 헬기와 산림청, 경찰, 군, 소방인력, 영양군수이하 400

여명 공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70여명이 함께 투입돼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면, 산불이 보다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간접요인은 바로 풍력단지였다.

이를 보면서 그동안 풍력발전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소수풍력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산림훼손, 환경파괴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는 지나친 편견으로 더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었음은 물론, 이후 각 지자체는 풍력개발에 순기능적인 측면의 접근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풍력은 지자체 세수 효과증폭,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연금

혜택 등의 순기능 뿐만이 아닌 이번 산불화재를 조기에 진화하는 방패막 역할을 톡톡히 해준 까닭에, 이제는 풍력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 풍력단지가 이와같은 큰 역할을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의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는 각 지자체가 과감하게 떨치고 오히려 순기능 논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자체가 살 상생의 길이라 여겨진다.

또 소수 풍력반대자들이 즐겨 찾는 국가기관인 환경청도 이들의 소수 반대자들의 주의주장으로 골머리 썩는다는 안일한 자세와 귀찮다는 자세를 과감히 버려, 더는 소수 주자들의 부정적인 논리에 손을 들어 주어 풍력개발이 지체되는 제동역할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공직자로서의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전문적인 산불진화를 진두지휘한 산림청 전상우 관리소장은 “이번 산불이 국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영양군이 군수이하 수백명이 화재진압에 적극 동참해준 지자체는 처음이다”면서 “또한 조기 진화에 풍력단지가 있었기에 쉽게 빨리 진화 할 수 있었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보다 엄청난 산불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렵고 위험한 산불 진화에도 마다하지 않고 애써준 모든 손길들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며, 우리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불조심을 통해 다시는 우리 땅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역시 이번 화재의 조기진압은 풍력 덕택으로 보다 엄청난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3일, 발생한 영양 산불화재는 산불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현장 산불진화 전문가의 리더십과 오도창 영양군수, 이영팔 소방본부장, 전상우 산림청 영덕국유림 관리 소장, 그

리고 지원나온 8대의 소방헬기, 군과 경찰, 400여 공직자 및 70여명의 자원봉사자 지난 4일 투입된 인접 군부대 100명 장병들 등 모든 분들의 열과 성을 다해 조직적인 진화활동으로 짧은 시간에 산불을 진화 할 수 있어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한번 이번 화마를 조기에 잠재우는데 역할을 톡톡히 해 온 GS제1풍력단지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린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기미독립만세공원에서 3·1절 기념행사



울진군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매화면 기미독립만세공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미독립만세공원은 북면 흥부장터와 함께 울진에서 수천명의 군민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곳으로,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의 열기 만큼이나 독립 열망이 뜨거웠던 곳이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된 기념행사에는 군수, 광복회원, 도의원 및 군의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존단

체 회원, 군인, 공무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울진교육지원청 황석수 교육장의 기미독립선서 낭독과 광복회 전광순 울진지회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념사에서 “희망으로 뜨거웠던 1919년의 봄,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 건설을 위해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달성군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 교실’운영!

달성군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 교실 운영!

달성군보건소가 관내 심뇌혈관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관리교실을 연 2기 진행한다.

혈압·당뇨병 관리 교실은 연 2기로 상·하반기에 1기씩 운영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운영될 고혈압·당뇨병 관리 교실은 3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달성군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운영된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교실에서는 질환자 및 건강고위험 지역주민에게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건강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질환, 영양, 운동, 심폐소생술 등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음식의료협력추진단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지원을,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에서 영양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3종 등 건강측정과 BMI 검사, 소변 중 나트륨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검사로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맞춤형 개인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관내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수준 높은 고혈압·당뇨병 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의 이환을 조기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관련 문의/신청은 달성군보건소 심뇌혈관질환 담당 (053-668-3958)이다.

김동현기자



정전보훈가족 따뜻한 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전 70주년 계기경북북부보훈지청-(사)한국부인회



경북북부보훈지청은 지난 3일(금), (사)한국부인회 경북북도지부와 ‘보훈가족 따뜻한 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매년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사)한국부인회 경상북도지부와보훈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호협력하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눔 정신을 확

산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김범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의무”라며 “6.25정전 70주년을 맞아 지역의 뜻있는 단체와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사과산업 미래경쟁력 확보'박차' 농업기술센터·농정과·현서농협 간 업무협약 체결



청송군은 미래 청송사과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규모 공동생산·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청송군농정과, 현서농협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송사과산업의 지속적인 미래경쟁력 확보에 중점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송군은 매년 30~50만주의 묘목이 식재되고 있으며, 미래수형 사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축, 2축, 밀식과원 조성 확대될 경우 관내 필요한 사과묘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이에 대응하여 사과 규모 생산·보급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규모 생산·보급 매뉴얼 구축을, 농정과는 규모 사용 확

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현서농협은 규모 책임생산을 통해 청송사과의 미래 100년을 위한 원천경쟁력을 갖추고자 상호간에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과주산지로서 국내 사과산업의 미래표준화를 선도하고 내수시장만을 바라보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과 수출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1990년대에 들어 M9, M26 왜성대목을 활용한 키낮은 사과원조성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사과재배 생력화를 주도했으며 앞으로는 미래과원조성에 적합한 사과 규모 생산·보급체계 구축을 통해 사과재배 스마트팜 추진 등 사과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기후 변화시대 선제 대응' 포항시, 하수도 정비 패러다임 선도

배수 능력 대폭 상향을 위한 빗물펌프장 신·증설, 2028년까지 총 1,467억 투입

포항시는 빗물펌프장 신·증설 정비 등을 통해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를 대비한 침수 예방에 매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형산빛물펌프장의 14개소와 장성간이펌프 외 20개소 등 총 36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빗물펌프장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월 중 빗물펌프장 8개소의 펌프 8대를 교체·정비할 예정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즉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형 태풍과 기록적 폭우를 동반한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 능력을 향상한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남구 대송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및 구룡포읍 일원

에 빗물펌프장 2개소를 신·증설하고, 창포동, 대송면, 송도동, 연일읍, 철강공단 등에 있는 기존 빗물펌프장을 증설해 기존의 펌프장 배수 능력을 20~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향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4개소를 지정받아 국비 880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587억 원 등 총 1,467억 원의 예산을 2028년까지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 대책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빗물펌프장의 시설점검 및 신·증설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북도민이 만족하는 행정, 직원 친절교육 실시

경북도는 도민에게 다가가고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민원처리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인 친절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전화·인터넷·서면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 유형별 응대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들어 잘못된 표현과 민원인에

게 오해를 일으키는 말투를 짚어보면서 직원들이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화의 경우 첫인사와 끝맺음말, 인터넷 민원의 경우 답변 말미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혀 민원인의 추가 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실무위주로 교육했다.

하반기에는 직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민원인 입장에서 직원 민원응대 방식을 평가하고, 객관적 평가결과에 따라 피드백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

비스 종합평가에 '가'등급을 목표로 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민원평가 대비 컨설팅을 의뢰하고 추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김호기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매뉴얼에 따른 민원응대 기법을 익혀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등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촉구 한목소리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겨야"

안동시를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가 3일 청풍리조트 힐하우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혁신도시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1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시군은 안동시를 비롯해 고창군, 제천시, 공주시, 논산시, 단양군, 동해시, 문경시, 밀양시, 봉화군, 상주시, 영월군, 태안군이다.

이날 토론회는 1부 공동성명서 낭독과 참여 단체장 서명, 기념촬영, 2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방향 및 지자체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성명서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된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 제한이 점점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도시 구도심으로 이전하여 공공기관이 구도심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듯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아난다"라고 하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중심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을 앞당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농업 재해 걱정은 이제 그만~ 농업 생산에만 신경 쓰세요!" 농업재해 예방에 적극나선 봉화군

폭염예방 지원사업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에 박차

봉화군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안심하고 농업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 농업재해 예방대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매년 가뭄과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태풍과 폭설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피해 등 각종 농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기상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날로 더 증가하고 있다.

봉화군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시름하는 농가들을 위해 자체 사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농업재해 조사단 운영을 필두로 폭염예방 용수저장·관수장비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사업,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봉화군에서는 농업재해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재해 조사

단은 재해담당 공무원, 손해평가인, 이장 등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0개 팀의 농업재해 전문 조사단이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과수분야 피해 여부와 피해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봄철 과수 개화 시기에 일시적인 기온 급강하로 인한 저온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 상심이 큰 가운데 신속한 조사와 더불어 과수농가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수기술 지도를 현장에서 실시해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재해조사단 운영을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농가 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등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특성상 산간오지가 많아 폭염으로 인한 가뭄에 취약한



농가를 위해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수의 농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폭넓고 촘촘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용수저장 물탱크 254대, 양수기 100대 등 가뭄·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과 더불어 천장 전기환풍기, 차광막, 차열망 등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600등을 지원한다.

또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중형관정 100공을 지원해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예방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봉화군에서는 국도비 외에 추가로 군비 40억 원을 지원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을 15%에서 8%로 월등히 낮춰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의 안전망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농업재해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농가는 안심하고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의성군, 농업인을 위한 소모성 농자재 마련 시동

의성군은 지난 24일 소모성 농자재 지원체계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관광경제농업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자재 지원사업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보조사업으로 사업들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고 작목별·사업별 신청으로 연초에 사업 신청이 몰려 혼란을 야

기할 뿐 아니라 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청구 등 농가에서 수행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공무원들의 정산업무가 과도한 실정이다.

이에 의성군은 분산된 소규모 농자재 보조사업을 통합하고 영농자재 전용 카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자재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체계화를 간소화하고 농업인에게 편리성을 제공한다

는 계획이며 원활한 개편 작업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자재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전북도, 독일과 지방자치·문화관광 우호협력 다진다

유럽 최대 관광박람회인 독일베를린 국제박람회(ITB) 참가

전북도가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K-전북관광' 홍보에 나선다.

전북도는 또한 시민 혁명의 발상지이자 전통문화와 공업의 중심지를 끼고 있는 독일의 작센 자유주와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특별자치도 출범 시 우호교류협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교환과 함께 전라북도지사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광홍보단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에 걸쳐 독일 베를린과 작센주 드레스덴시에서 K-전북관광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K-전북관광홍보단'은 독일 베를린에서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에 참여해, 전북관광홍보관 운영, 여행사 상담회, 전북관광워크숍 등 전북 관광자원을 알릴 계획이다.

독일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는 2019년 기준 6대륙 180개국에서 16만명이 참여한 유럽 최대 관광박람회로 코로나19로 4년만에 개최돼 유럽과 세계 각국의 관광업계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행사 기간 'K-전북관광홍보단'은 김홍균 주독 한국대사, 양상근 독일베를린 한국문화원장, 베를린관광청 주요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 문화와 관광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3월 7일에는 'K-전북관광홍보단'은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을 만나 전북도와 작센 자유주 간의 우호도시 체결을 위한 의견교환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전북도지사 친서를 작센 자유주 국무장관에게 전달하고, 독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 행사, 중앙정부와의 관계, 작센 자유주의 자치 성공사례 공유 등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K-전북관광홍보단'은 김홍균 주독한국대사와 베를린관광청 주요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2023년 전북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국제 행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3월 9일에는 양상근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장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독일 베를린에서 추진될 '전북문화관광' 홍보 행



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마지막날인 3월 10일 'K-전북관광홍보단'은 독일의 작센 자유주 주도인 드레스덴시에서 드레스덴시 부시장, 드레스덴시 관광공사 사장 등 주요관계자를 만나 양 도시의 관광활성화 방안논의와 의향서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작센 자유주 관광업계, 여행사, 언론사, 드레스덴시 주요관계자 등 2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K-전북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매력적인 전북의 관광자원을 소개한다.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독일 베를린국제관광 박람회는 세계 3대 박람회로 세계 유수의 관광업계가 참여하고 있어 관광자원 홍보에 안성맞춤이며 전북 관광 브랜드 제고가 기대된다"며, "특히 독일은 지방자치제도를 잘 실천하고 있는 국가로서 작센 자유주 국무장관과 특별자치도 논의, 작센주 관광설명회 개최, 드레스덴시와 의향서 체결은 양 지역 간 문화관광 협력사업과 교육분야의 교류확대 등으로 지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군산시, 전북 군산형 일자리 2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

전기자 클러스터 협업기술 개발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기대

전북 군산형 일자리 국비 공모사업 4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전자기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서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전문가 7명의 엄정한 심사를 통한 사업계획 검토 평가를 받아 국비 4억원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기업수요 조사 결과를 통하여 ①수요연계형 기술지원, ②협업 네트워크 및 사업화의 2개 분야 4개 사업을 발굴해 대응했으며, 이번 선정으로 국비 4억원과 지방비 4억원을 포함한 총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생산하는 차종이 대부분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해 ▲소량 생산 적합형 생산 및 품질확보 기술, ▲기술 고도화 전주기 지원, ▲기업 간 협업 및 마케팅, ▲사후 이행관리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기 클러스터 확산을 위해 지원

대상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전후방 연계 부품기업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관기관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3월 중 20여건의 지원과제 및 참여기업 선정하는 사업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시너지 효과로 전자기 클러스터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부 공모선정이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했다"면서 "참여기업의 조기 착공과 추가적인 일감확보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개발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생협업을 통한 전자기 클러스터 활성화로 산업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순창군, 경로당 불편사항 해소 본격 나선다

총 사업비 10억 투입 시급한 환경개선, 비품구입 우선 추진예정



'군민과의 소통'을 최대 가치로 두고 군정을 이끌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관내 317개 전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를 통해 가장 많이 건의됐던 경로당 불편사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해 읍면 370개소에 달하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억 규모의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본 사업은 당초 본예산 4억원 규모였으나 최영일 군수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11개읍면 전체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을 해결하고자 6억원의 예산을 지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로당의 화장실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소규모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비품구입 지원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전자제품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편하게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식탁과 의자, 소파 등을 구입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일을 요하는 장기적인 사업은 면밀한 현장 실체조사를 거쳐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연초부터 관내 370개 전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제갈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식/기자

익산시, 2023년 신규 아이돌봄비 전북 최다 양성

익산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비 30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정부지원시간 확대(22년 840시간→ 23년 960시간) 및 본인부담금(첫째아 70%, 둘째아 이상 100% 지원)지원사업 지속추진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아이돌봄비 추가 양성을 추진했다.

아이돌봄비 모집 공고를 통해 지난 1월 아이돌봄비 총 62명에 대해 서류접수를 마치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검사(MMPI), 3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교육생 중 27명이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총합격 채용자는 양성교육 기 이수자 3명을 포함한 총 30명이다.

이는 도내 아이돌봄비 양성인원 총 49명중 익산시가 30명, 기타 지역은 19명(고창 1, 김제 3, 남원 5, 무주 2, 부안 3, 순창 2, 장수 1, 정읍 2)로 익산시가 도내 최다(61.2%)로 신규 돌봄비 인력을 양성한 것이다.

시는 '아이낳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시비 보조금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지속 채용해왔다. 현재까지 160명의 전문 아이돌봄비를 배출해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봄비 신규채용으로 대기가정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성 있는 아이돌봄비 배치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비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21년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본인 부담금 지원사업)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선수/기자



'시민과 함께' 강한 경제 전주의 꿈 키워

민선8기 시정 운영 방향 설명하고, 각 동 발전과 전주의 대변혁 위한 다양한 목소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의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한 의견을 듣는 동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북동과 금암1동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 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은 먼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 전북동 방문 일정에서는 참석한 인근 주민과 시의원, 유관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등 200여명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전북동은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MICE복합단지, 왕의공원 프로젝트,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공간 조성 등 민선8기 전주시의 핵심사업 공간들과 인접해 있어 미래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전북동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전북동 하수관거 사업, 전북동 치매안심마을 운영,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이날 오후 전북보훈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금암1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에는 인근 주민과 시의원, 자생단체, 유관기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동 발전과 전주의 대변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팔달로 등 전

주의 대동맥이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인 금암1동은 전북은행 본점과 보험회사 등 금융 관련 회사가 밀집된 금융중심지이기도 하며, 전주의 주요 관문인 시의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중요한 장소다. 또, 인근에 전북대학교가 위치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종합경기장과 바로 인접해있어 민선8기 '전주의 대변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이날 금암1동 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 전주시의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금암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금암초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제안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변혁의 꿈을 꾸고,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오늘 제안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전북동과 금암1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여러분은 우리 남원시의 희망입니다!

500여명 공직자와 함께 3월 '소통혁신의 날' 행사 가져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3월 2일 5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소통혁신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 시장이 지난 1~2월에 추진한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통해 민선8기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공약 실천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더 많은 공직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소도 시청 강당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 진행됐다.

최 시장은 이날 '소통혁신의 날'에서 공직자들에게 민선8기 공약으로 6대 분야 41개사업을 선정하고, 공약실행을 위해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끊임 없이 방문하며 국가예산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1,500여명의 공직자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함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달려야 지역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달라"며 "공직자로서 자존감을 갖고 직무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과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 되어 시 발전을 고민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시장은 "이 같은 공직자들의 노력에 직무 중심으로 성과를 반영해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당한 평가와 보상



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정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남출/기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든스테이 순천, 설랑게' 운영

3월 10일부터 네이버, 야놀자, 인터파크 등 '설랑게' 숙박 예약 오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 순천, 설랑게'가 오는 10일, 숙박 예약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챙기는 웰니스 관광 트렌드에 맞춰 국내에서 접하지 못했던 프리미엄 정원 체험상품인 '가든스테이'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가든스테이는 60만평 정원에서 하루, 오직 100명만이 누릴 수 있는 관광·체험·숙박·가드닝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2023정원박람회가 열리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가든스테이' 예약 시 2023정원박람회 2일간의 입장권은 기본으로 제공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이 쏟아지는 만큼 당초 순천만국가정원 가든스테이를 독점적 브랜드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부 의견을 반영해 '가든스테이 순천, 설랑게'로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하여 런칭했다"고 밝혔다.

'설랑게'는 Shi + Lange의 합성어로 쉬, 조용하게, 느긋하게 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전라도 방언을 활용하여 내가 쉬겠다는 적극적인 표현과 우리 함께 쉬자는 청유형 두 가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설랑게'는 실제 스칸디나비아나 독일의 언어를 반영하여 표기나 표현도 세련된 정원문화와 자연을 한껏 즐기고자 하는 가든스테이의 상징성을 반영했다.

김병수기자

진도군, 물가안정 기관·단체와 함께해요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등 릴레이 캠페인 실시



진도군이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관·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주요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를 비롯 농협은행,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공무원들과 함께 최근 진도읍 주요 시가지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진도군의 착한 가격업소도 자주 이용해 지역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물가 안정으로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군은 물가안정과 합리적인 소비 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제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서민 경제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윤경호기자

셋노란산수유·벚꽃 흩날리는 전남서 봄맞이 하세요

전라남도가 지역 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례 산수유꽃과 섬진강 벚꽃 등 전남 대표 봄꽃 여행 관광상품 판매를 위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홈쇼핑 마케팅에 나선다.

관광상품 판매는 5일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매체인 지에스(GS)홈쇼핑 채널에서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구례 산수유꽃 여행상품은 산수유꽃 축제와 연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용산역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구례에 도착하면 노란 빛깔로 물든 환상적 산수유마을에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워 옛 선비가 풍류를 즐겼던 운흥정,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푸르른 섬진강 대나무숲길 등에서 인생 사진과 추억을 안고 되돌아갈 수 있다. 판매 단가는



성인 1인 기준 4만 5천 원이다. 또 벚꽃 여행상품은 4월 1일부터 9일까지 매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관

광전열차(새마을호)와 연계한다. 수도권 관광객을 대량 유치가 기대된다. 열차에선 빙고게임 등 다양한 이벤

트가 진행되며, 지역 관광버스를 이용해 화엄사 음식거리, 섬진강을 따라 분홍빛으로 물든 벚꽃길 산책과 섬진강 대나무숲길 등 섬진강 주변 힐링 로드를 체험할 수 있다. 판매 단가는 성인 1인 기준 9만 9천 원이다.

여행상품 구매는 GS홈쇼핑 방송일인 5일 생방송 시청 전화 주문, 온라인 GS홈쇼핑 쇼룸몰이나 GS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도는 TV홈쇼핑을 통해 숙박상품, 섬여행 특별전 등 관광상품 판매 지원으로 관광객 4천416명을 유치, 4억 8천만 원 판매를 달성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춘풍이 가장 먼저 불어오는 남도에서 봄의 절경사인 산수유꽃과 벚꽃 나들이를 즐기면서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가족,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장흥군, 국립 전남 호국원 조성 위해 TF 구성

장흥군이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회의는 전남 호국원 조성을 위한 부서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11개 부서 27명으로 구성된 TF는 인허가 절차 및 관련법 검토와 주변 기반시설 구축 등 중장기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국립 호국원은 현재 경기 이천, 충북 괴산, 전북 임실, 제주, 경북 영천, 경남 산청 등 전국 6곳에 설치돼 있다.

지난 12월 강원도 횡성에 건립이

확정되면서 전남만 유일하게 국립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다.

장흥은 지리적으로 전남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광주와 전남 도내 어느 곳에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여 호국원 유치 최적지로 꼽힌다.

장흥에 호국원이 건립되면 광주·전남권 유족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전남 권 외 타지역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 것으로 장흥군이 보고 있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를 배향하는 국내 유일의 사우인 해동사가 있고,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 중 최후의 격전지로서 의항성이 높은 문림의향으로 알려져 호국원 이미지도 부합

한다.

군에 조성되는 호국원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공간으로 제공되어 국립공원의 개념이 강한 추세다.

장흥군에 호국원이 들어서면 방문객 증가로 관광, 숙박 수요가 늘어나 지역경제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유일하게 전남에만 없는 호국원을 유치하기 위해 분야별 TF팀가 활동을 시작했다"며, "전남 호국원 장흥군 유치에 총력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화순군은 3월 2일 화순교육지원청, 농축협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7개 분야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6월 그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추진해 왔다.

'먹거리 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신선·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먹거리 공급체계 활성화 및 지역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판매 로컬푸드 출하 농가 및 중소·고령·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올해 6월 총 40억 원 공모사업에 신청해 국비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이번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기반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경호기자

"해남군 감동 스포츠마케팅 통했다"연인원 4만명 전지훈련

국가대표 선수촌 방불케한 스포츠마케팅 열기, 전문가 배치 맞춤형 지원 주효



해남군 스포츠마케팅이 감동을 선사하며, 2022~2023 동계 전지훈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해말부터 시작한 동계시즌 동안 해남군에는 14개종목에 134개팀, 연인원 4만여명의 전지훈련팀이 해남을 방문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전지훈련이 중단되다시피한 2020년 이후 최고 인원이다. 지난 11월 28일 펜싱팀이 시작으로, 두달여간 선수단 방문이 줄을 이었다.

3월 현재까지도 4개팀이 훈련중으로, 3월30일까지 동계 시즌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겨울은 대규모 선수단의 방문이 눈길을 끌었다.

국가대표 근대5종팀을 비롯하여 국가대표 근대5종 꿈나무선수단,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 도약, 중장거리 선수단, 국가대표 육상 체육영재선수단 등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선수단이 대거 방문해 마치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또한 경기, 부산, 경북 등 체육고등학교에서 인원이 많은 기관단위 팀

이 방문해 1월에는 일시 훈련선수인원 1,200명을 육박하는 등 해남은 전제가 스포츠선수들로 북적이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서울시레슬링협회 합동전지훈련을 비롯한 축구, 펜싱, 육상 스토브리그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해남군의 스포츠마케팅 성공전략에는 전문화된 시설은 물론 스포츠 전문인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지훈련 선수기인 1~2월 동안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 출신 트레이닝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지훈련팀 지도자들과 일대일 소통을 통해 훈련 동선 관리부터 부상선수 재활트레이닝 상담 등 훈련 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지역관광, 타종목 체험 등 선수 휴식관리까지 세심한 관리를 통해 참가 선수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호평을 받았다.

해남군은 3월부터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개최에 돌입한다.

14일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제6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농

구대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동안 25개의 전국단위 대회가 해남에서 열린다.

군은 남녀 중고농구대회 기간동안 전문 의료 트레이너가 없는 중고 선수들을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문 재활트레이닝팀을 투입, 부상방지를 위한 스포츠데이팅 서비스를 실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농구대회에 선수부상방지 데이팅팀의 운영이 평균화되는 시너지효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해남군은 올해 열리는 스포츠대회에서도 감동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으로, 모든 선수가 최고의 환경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선수들이 올 한해 최고의 기량으로 원하는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굴뚝없는 청정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광남기자



충남도, 주민자치 이끌 핵심 인재 역량 높인다

도 인재개발원, 3일 '주민자치 리더 역량 강화 교육'...특강·안전 협의

충남도 인재개발원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주민자치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김태홍 지사와 도·시군 주민자치회 임원, 시군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영상 상영, 특강, 안전 협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했으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표어인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실현을 위한 도정 목표와 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뜻이 있으면 이를 수 있다'라는 뜻의 '유지경성(有志竟成)'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의미인 '지재유경(志在有成)'을 강

조하면서 목표 설정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지역의 진짜 대표인 주민자치회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 인재개발원은 '주민자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조승자 공공자치학회 자치리더십센터장의 특강을 진행,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함께 살폈다. 아울러 올해 주민자치회 대상 교육 추진과 관련해 주민자치회와 시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교육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도·시군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를 위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현안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도 인재개발원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검토·반영해 오는 7일 천안시 이·통장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시군

별 현장 교육을 추진,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3000여 명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이 지역 현안을 살피고 도정에 함께할 수 있는 주제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천안시립미술관, 2023 흑토끼해 기획전 '무릉묘원' 개최

천안시립미술관은 오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2023년 흑토끼해를 맞이해 '무릉묘원(武陵描源)' 전시를 개최한다. '무릉묘원(武陵描源)'은 동시대 미술 속에서 토끼라는 대상에 내재한 사회문화적 상징과 의미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해 다양한 시선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토끼가 지닌 생태적 특징에서 착안한 작품부터 문화적 상징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토끼'의 다양한 면모가 담긴 설치, 회화, 영상 등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달과 토끼', '현대인과 토끼', '꿈과 희망의 토끼'라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강현정, 김성원, 김근배, 김우진, 맞살, 최규식, 허강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토끼'라는 대상이 지닌 새로운 가치의 발견으로부터 예술적 교감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세밀한 삶의 의미를 예술로 전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립미술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시각예술팀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근/기자



샤이니 민호, 청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충북청주FC와 아버지를 응원하는 마음 담아 기부금 전달

청주시는 그룹 샤이니의 민호가 고향사랑기부 연간 개인 최대 한도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민호는 그룹 샤이니로 2008년 데뷔해 가수 활동은 물론 영화, 드라마,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하고 있으며, 멋진 외모와 항상 열정적인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더불어 충북청주FC 최윤겸 초대 감독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축구에 대한

사랑으로 오는 4일 충북청주FC 홈 개막전에 시축까지 참여해 청주시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민호는 "2023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버지와 충북청주FC를 응원하는 마음에 청주시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충북청주FC에 청주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의 주소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의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인 기부금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 지점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박경귀 시장 "인주는 아산의 백 년 미래가 담긴 지역... 소통과 발전 이어갈 것"

3일, 인주면을 마지막으로 17개 읍면동 열린 간담회 종료



박경귀 아산시장과 인주면 주민들의 열린 간담회가 3일 인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8일 신창면에서 출발해 아산시 17개 읍면동을 순회한 열린 간담회의 마지막 종착지로, 모든 열린 간담회에 동석한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과 아산시 국·소장을 비롯해 홍순철 아산시의원, 인주면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인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경귀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전국에 많은 읍면동이 있지만, 서해북선전철부터 서부내륙고속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까지, 1개 면에 3개 광역 교통망이 들어와 있는 곳은 인주면이 유일하다"면서 "그만큼 인주는 앞으로 뻗어갈 미래가 전도무양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를 비롯해 숙박시설 개발사업, 서해물류센터 구축, 아산의 새로운 백 년을 위한 아산항 개발 추진까지, 추진 중이거나 타당성 조사 작업 단계인 굵직한 사업이 많은 지역인 만큼

면민 여러분과의 소통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면서 "인주의 발전 방향과 아산 시정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의 견해를 좁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해물류센터 추진 과정 관련 문의, 냉정저수지 둘레길 조성, 소규모 노후 아파트 안전 점검 업체 선정 관련 질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보조소 설치 관련 문의, 경로당 난방비 및 급식비 인원수별 차등 지원 요청, 냉정리 불법 유키구 보호소 관련 민원, 인주 3공구 조성에 따른 주민 대책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 인주면을 끝으로 17개 읍면동 열린 간담회가 끝이 났다"면서 "모든 질문과 민원에 선물 같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헤들 수 없는 사안이라도 저와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님과 의원님들, 아산시 국장들이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불편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직접 듣고 알게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바로 해결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도, 그 이유를 최대한 소상하게 설명드리려는 노력이 시민 여러분께 닿았길 바란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행정으로 노력할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아산시는 지난해 인주면 열린 간담회에서 접수된 38건의 민원 및 건의 사항 중 인주 3공구 이주 대책 마련 및 감정사 시정 요청, 마을 경로당 지원금 인구조별 차등 지원 요청, 공세천 배수로 정비공사, 버스 승강장 신설 요청 등 1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의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5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동해시, 동해형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청사진 제시

동해시가 인구 고령화와 건강 수요 증가 등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바이오산업에 발맞춰, 동해형 바이오산업 구상에 착수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면역체계 증진 등 건강에 대한 세계시장 규모가 2010년 이후 연평균 9.8%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를 전망하며 바이오산업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 신산업으로 보고 있다. 또, 세계 각국이 바이오 분야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도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범정부적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시의 경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도내 수산물 유통 중심지이자 환동해권 최고의 입지를 지닌 국제물류 수입 거점 동해항·목호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해바다와 태백산맥 등의 잠재적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북평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지역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 이점, 경제자유구역 개발가능성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 인프라 결합 여건이 타지역 보다 유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등원/기자

이에따라, 시는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 조사 및 전략, 정부 바이오산업 주요 정책 분석 후 시에 적합한 바이오산업 분야 발굴, 분야별 협력 가능 기업군 선정 및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타 지역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인근 지역과의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해양 및 산림 중심의 청정 그린 바이오 소재 원재료 활용, 상용화 전략 구상을 마련하는 한편,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로 화력선, 컨테이너선 등 국제 정기항로를 활용한 수출입 추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혜택(인주 지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 유치도도,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 연계로 글로벌 관광 휴양 도시, 환동해권 산업,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인 시장은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고용효과도 큰 만큼 선제적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차별화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동해형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월군, 2023년 핫한영월 먼저 살아보기 본격 운영!



영월군은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지원 및 관광자원 투어 제공을 통한 도시민 관계인구 맺기를 통해 관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핫한영월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지난 2일을 시작으로 본격운영에 돌입한다. 본 프로그램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며 참가자에게는 거주공간, 활동비(30만원),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1기는 총 7명으로 만 18세 이상의 타·시도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자로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며, 참가자들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살아보기 체험에 돌입한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 희망지역에 대한 사전 답방 기회 제공으로 농촌 정착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관계인구 맺기를 통해 귀농귀촌 유지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최재형 보은군수, 산불 대응 상황 긴급 점검 추진



최재형 보은군수는 최근 타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3일 군내 산불취약지역 등에서 산불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봄철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 집에 따라 선제적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최재형 군수는 산불 진화 헬기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영농부산물 제거 현장을 돌며 산불 대응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라"고 당부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기동 단속 등 입체적인 감시를 통해 산불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봄철 산불 조심 기간 군청 산림복지과 전 직원이 4인 1조

로 매일 21시까지 산불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 산불감시원 및 예방 진화 대원 106명을 배치해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과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삼승면 금적산, 수한면 수리터재, 회인면 국사봉, 마로면 시루봉, 속리산면 갈목재 등 5개소에 설치된 모니터링과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 조기 발견에 집중하고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5대와 기계화시스템 15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불 전문 진화대 및 감시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군민 여러분도 화기 물품 취급 주의 및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방문... 상호협력 방안 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핵융합장치(KSTAR) 주 제어실과 주 장치실을 둘러봐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와 핵융합연구원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2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핵융합연구원을 찾았으며, 이번 방문은 대전시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시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핵융합연구원 과학자의 놀라운 기술력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고,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물이 대전의 경제와 부를 키워 연구와 산업기능이 융합된 살기좋은 과학도시로 도약하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한 과학기술 집약도 부문 전 세계 3위 달성과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 1위 설문 결과를 설명하며 "이는 대전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혁신클러스터이며 글로벌 과학도시로 사실상 인정 받았다"고 강조했다.

핵융합연구원 유석재 원장은 "현재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 시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핵융합 연구동과 핵융합 연료시스템 연구시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답하며, "지난 50년간 대덕특구가 대전시 안의 섬이었다면, 앞으로는 대전시와 대덕특구가 한 팀으로

자라게끔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도시로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이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핵융합장치(KSTAR) 주 제어실과 주 장치실을 둘러봤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3월 1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하여 출연연과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 대전환 심포지엄 개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소개 및 미래 제시,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

경북도농업기술원은 3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연구·지도직공무원 및 농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농업전문가를 초청, 『2023년 디지털농업 대전환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국가 디지털 대전환 정책으로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북 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디지털 대전환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경북이 추구하는 농업 디지털 대전환은 생산·유통·소비 등 농업활동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통적 구조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 민선 8기 농정비전의 핵심사업인 디지털농업 대전환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는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추진단 성재훈 단장의 △스마트농업이 이끄는 농업의 미래, 네이버클라우드 류재준 이사의 △네이버클라우드



가 생각하는 스마트팜, 유비엔 안은기 대표의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경북 농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정책, 신기술 실증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참석한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은 기상악화, 병해충 발생 등 피해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제시하고, 안정적 생산이 고부가가치 유통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숙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이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농업 대전환이 필수"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경북농업이 디지털 농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산업관 참가기업 모집

(재)2023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기간 중 한 방향노화산업관에 참가할 기업을 5월 31일까지 모집하며, 4월30일까지는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관은 지역 제한 없이 한방/한의약 가공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뷰티, 바이오/제약, 바이오/헬스케어 등 5개 분야로 모집한다. 특히 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의 참여를 통해 한방 향노화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부스 신청은 전 기간(독립부스, 130만원)과 단기간(기본부스, 160만원, 총 6회차) 중 선택 가능하며, 조기 참가신청 시 3월 말까지 25%(40만원), 4월 말까지 15%(24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조직위로 이메일 신청 가능하다.

2013년에 비해 모집 규모를 2배 확대하여 150개사, 75개 부스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차별 운영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에는 수출상담회, 온라인마케팅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출상담회는 전문기관이 보유한 해외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별 사전매칭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바이어를 초청할 계획이다. 초청 바이어 50명에게는 항공, 숙박, 통역 등이 지원된다.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마케팅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온라인광고 제작지원(배너광고, 콘텐츠광고, 키워드 광고, 인플루언서 협찬광고 등) 및 기업 마케팅 콘텐츠 확충(제품 사진촬영, 홍보영상 제작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존에서는 관람객과 임점 기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품행사, 물렛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5월 말까지 참가 신청을 마무리한 후 6월 중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직위 윤두희 운영본부장은 "10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승인 행사인 만큼 향노화 분야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의 한의약·향노화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2023. 9.15.~10.19.까지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최광용/기자

김병규 경제부지사, 남해군 농촌 및 주요현장 점검 나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관계자 격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3일 남해군을 방문해 농업·농촌현장의 지역주민, 청년농업인, 관계공무원 등과 소통하며 주요현안 사업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미래농업에 대비한 농업인 과학영농 교육현장인 남해군 실증시험포장 스마트온실(1,150㎡, 3연동 비닐하우스)을 방문해 온실 입식작물인 파파야 등 12종의 재배상황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남해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 남해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마을연구소'와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시설의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래 먹거리 식품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현장에서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 송동관(달기재배), 박종천(토마토재배) 농가의 농장을 방문해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방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의 최대 현안으로 관광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해 라이딩 아일랜드' 조성 현장을 방문해 남해군 관계자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적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새로운 시책개발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충북도, '북부권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개최

기업현장의 위기극복,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충청북도는 3일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2023년 북부권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3고(高)현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공유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규 경제부지사,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기업인협회장을 비롯한 10개 기업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2022년 기업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도내 제품 구매 확대에 대한 도의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 7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공사발주, 물품 구매 시 지역 제품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2023년 충청북도 지역제품 구매 및 판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발주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검토하는 '지역제품 우선 구매 검증시스템'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 방안을 안내했다.

이어, '2023년 충청북도 경제정책 방향 및 중소기업 주요시책'을 설명하여 자금, 기술, 판로, 수출 등 각 부문별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김명규 경제부지사 주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나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시멘트, 레미콘 등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주 52시간제 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등에 대한 도내 기

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지역산업 활성화와 영세 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 등 다양한 정책 건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역기업의 발목을 잡는 자금, 수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충주 소재의 (주)쓰리에이를 방문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신속한 기술사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경영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우리 경제의 모체현관과 같은 지역 중소기업이 현재 3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경기침체를 딛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오늘 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발굴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장미 '아리엘' 등 육성품종 평가회 열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장미 신품종 및 유망계통 평가회'를 농업기술원 및 국립과목연구관 등에서 고양, 파주 지역 장미 재배농가, 유통관계관, 종묘업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아리엘', '블링블링', '캐롤라인', '보보스' 등 경기도가 개발한 장미 신품종 10종과 GR19-66 등 유망 육성계통 60종에 대한 재배특성을 설명하고 기호도 평가와 우수한 계통 선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작년에 품종 출원한 '아리엘' 품종은 연노란색 바탕에 보라색 테두리가 있는 대형 스탠다드 절화(꽃을 줄기와 잎과 함께 잘라낸 것)용 품종으로 꽃색이 화려하고, 절화장이 길어서 품질이 우수하고 생육이 빨라 생산성이 높다. 또한 현재 화훼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시장 유망 보급 품종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도 농기원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품종과 계통은 정밀한 계절별 병해충 저항성 등의 재배 테스트를 여러번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화훼농가의 해외직불 로열티(royalty) 경감과 경기도 육성 장미

보급을 향상을 위해 지난해까지 83품종을 육성해 농가에 보급해 총 33억 원의 로열티를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장기적인 화훼산업의 침체와 울거를 난방비 증가로 인하여 장미농가가 시름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로열티에 대한 부담 완화시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대구시,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지역기업 참가지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2023' 개막

대구시는 2023년 2월 27일(월)부터 3월 2일(목)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스페인)는 CES(세계가전전시회, 미국), IFA(국제소비자가전박람회, 독일)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IT 종합 전시회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된 지난 3년간의 공백을 깨고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모바일 산업 중심의 전시회로 5세대 네트워크 기술 가속화(5G Acceleration), 현실 이상의 현실+(Reality+), 개방형 네트워크 오픈넷(OpenNet), 디지털 금융서비스 핀테크(Fintech), 디지털의 일상화(Digital Everything) 등의 주제로 개최됐으며,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8회째(2020년 MWC는 코로나로 인한 미개회) 공동관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MWC 디지털 오픈랩 공동관에는 지역 기업인 (주)인티인(대표 김지훈)의 '스마트



간편 배란스트기 및 모니터링 플랫폼' 및 '멀티 호흡 진단 치료 시스템'을, (주)지엔에스모바일엔스(대표 박동권)의 '레저용 위성자동추적 안테나 시스템', (주)우경정보기술(대표 박은하)의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등을 선보여 해외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총 상담 104건, 상담 금액 약 790만 불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전시회 기간에 대구시 대표단이 현지 방문해 해외 IT 산업 동향을 파악했고, 향후 MWC 공동관 운영에 대

해 협의했으며, 참여한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공동관을 참관한 류동현 대구시 AI블록체인과장은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4년만의 개최된 영덕대게축제, 비상(飛上)하다!

- 제26회 영덕대게축제, 삼사해상공원에만 6만여 관광객 몰려
- 삼사해상공원으로 축제장소 변경한 것이 보다 큰 성과 거두게 돼
- 김광열 영덕군수, "이번 축제는 영덕주민여러분께 MVP 드린다"

"영덕대게 축제! 완벽한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하며 높이 비상(飛上)하다!"

코로나-29로 인해 4년만인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된 '제26회 영덕대게축제'가 축제장인 삼사해상공원에만 6만 여명의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한건의 사고없이 성료됐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지난 25일(토), 영덕대게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삼사해상공원 축제장을 찾아 영덕대게 축제의 이모저모 현장을 취재했다.

이번에 개최된 영덕대게축제는 그동안 4년간이란 긴 잠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개최된 영덕대게축제는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차량과 인파로 차고 넘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역에 널리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축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삼사해상공원에서 열린 영덕대게축제 본행사엔 축제 기간 내내 축제장인 삼사해상공원은 물론, 강구항과 강구대게거리 일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 들었고, 실제로 취재진이 이곳 강구항 대게거리를 지나가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관광객들의 긴 차량 행렬로 10m를 이동하는데 1분이 걸릴 정도로 줄줄이 이어졌다.

또한, 이번 축제기간 중, 삼사해상공원에만 6만여 관광객 몰려 들었으니, 영덕강구항과 강구대게 거리에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왔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축제는 운동 외지

에서 찾아 온 관광객들로 차고 넘쳐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모두가 다 영덕대게축제가 깊이 매력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덕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해 축제 준비를 다 마친 가운데 오픈을 하려던 차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개최 직전 취소의 아픔을 겪은 영덕대게축제였다"고 운을 떼면서 "그래도 올해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줘, 너무도 가슴 뿌듯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2023영덕대게 축제는 무엇보다 새롭게 단장한 축제 모습들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함께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아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

특히, 축제 준비기간 축제 장소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평시 개최지인 해파랑공원 에서 축제장소를 삼사해상공원으로 옮긴 것에 대해 여러 불멘 소리들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번의 축제장소 변경은 분명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기실 취재진이 찾은 주말인 토요일 삼사해상공원 축제장과 강구항과 강구대게 거리는 수많은 인파와 차량행렬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킨 멋진 축제로 자리매김해 더욱 큰 의미를 부여했다.

취재진은 강구항에서 만난 서울에서 오셨다는 A씨(여, 46세)는 "영덕대

게 축제장은 해마다 찾아 오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모처럼 개최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면서 "이번 축제기간중 영덕군이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와 볼거리, 먹을거리, 느낄거리, 즐길거리 등 오감만족을 위해 잘 준비해줘 맘껏 힐링을 하고 돌아갈 수 있어 참 좋아 내



이 대게 축제를 찾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취재진



이번 영덕대게축제를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한 지역의 리더로서의 리



더 쉽이 그 지역을 얼마나 살찌우고 얼마나 알차게 해 주는 소중한 덕목인가를 이번 개최된 영덕대게 축제의 완벽한 성공의 모습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어 김광열 영덕군수의 깊은 혜안의 리더쉽과 영덕대게 축제위원회의 추진력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더군다나, 이번 '2023 영덕대게 축제'는 준비된 것 하나하나 '때로부터 달라진 축제'로 관광객의 시선을 맘껏 흠뻑했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새롭게 단장한 축제였다.

'영덕대게 축제'와 달리 한층 더 새롭고 신선함을 안겨준 축제였다. 이날 실시된 안전지원제 행사는 그동안의 단순한 제례 형식의 탈을 완전히 벗어나 수준 높은 전통 연희 공연과 재담이 오가

는 선두로 풍물단을 포함해 300여명이 넘는 지역민이 함께 준비하고 펼쳐진 퍼레이드는 축제의 상징이 될 만큼 큰 장관을 이뤘다. 더욱이 마지막 도착지에서 9개 읍·면의 풍물단이 한데 모여 펼쳐는 흥겨운 타



별 악연 주는 지역민들에게도 화합의 메시지를 남긴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또한, 본 축제장인 삼



사해상공원에 서도 진귀한 풍경이 이목을 끌었다. 지름 25m에 달하는 투명 거대한 에어돔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볼거리였지만 2월의 쌀쌀한 날씨에도 추위 걱정 없이 축제에 참여해 획득한 대개와 각종 먹거리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비장의 한 수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시설 안에서 축제장의 풍경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지름 25m에 달하는 투명 거대한 이색적인 에어돔은 축제 기간 방문객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가장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2023년 영덕대게축제의

에 항상 해왔던 몽골텐트 부스를 완전히 벗어나 축제 컨셉을 담아낸 컨테이너 부스를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움을 듬뿍 선사함으로써 큰 인기를 끌었다.

먹거리 또한 대게살 주먹밥, 대



개 파전 등 참가 읍·면 모두 영덕대게를 활용한 음식

선 보였고, 깔끔하고 세련된 설비와 대게를 활용한 먹거리는



거뿐다. 영덕대게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대게 낚시, 대게 달리기, 대게 경매 또한 참가 신청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행사장 바로 옆에서 바로 찌내는 대게는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참가자들과 호응하며 펼치는 즉석 공연은 체험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한껏 높여 영덕대게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이라이프였다. 지역민이 참여한 영덕 읍·면 먹거리 부스는 기존에 항상 해왔던 몽골텐트 부스를 완전히 벗어나 축제 컨셉을 담아낸 컨테이너 부스를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움을 듬뿍 선사함으로써 큰 인기를 끌었다.

먹거리 또한 대게살 주먹밥, 대



개 파전 등 참가 읍·면 모두 영덕대게를 활용한 음식

선 보였고, 깔끔하고 세련된 설비와 대게를 활용한 먹거리는



거뿐다. 영덕대게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대게 낚시, 대게 달리기, 대게 경매 또한 참가 신청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행사장 바로 옆에서 바로 찌내는 대게는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참가자들과 호응하며 펼치는 즉석 공연은 체험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한껏 높여 영덕대게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면 주민의 경험 프로그램인 대게달리기, 대게줄다리기, 축제송 플래시몹 공연도 기대 이상의 재미를 선사하며 방문객들에게 참으로 후한 점수를 얻었다. 대개거리 퍼레이드, 읍·면 먹거리 부스와 함께 축제의 주축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은 축제 추진위가 뽑은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수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축제 추진 위는 대게 낚시, 대게 달리기 등 대표 체험 축제장의 크기가 협소하다는 참가 관광객들 및 지각 있는 분들의 의견 개선에 따라 2024년부터는 축제장의 크기를 키우고 스탠드 객석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이국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편의성과 재미를 향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아무리 훌륭한 축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축제는 기대 이하 축제로 치부될 수 있다보니 안전관리는 그 어느 것보다 매우 소중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영덕군은 이번 대게축제 행사를 무사히 치러내기 위해 관련기관과 단체가 나서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영덕 경찰서와 영덕소방서에서 각각 160명과 52명을 축제장과 국도변에 배치했고, 모범안전자연합회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들은 이번 영덕대게 축제를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완벽히 업그레이드 시킨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삼사해상공원 축제장에서 만난 상인 K씨(남, 62세)는 "이번 영덕대게 축제를 위해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할 맘가짐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무엇보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대게를 맛볼 수 있도록 애썼다"고 말했다.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박오수 위원장은 "4년 만의 오프라인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는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축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영덕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신 군민여러분들께 MVP의 영광을 드리고 싶다"며, "항상 사시사철 볼거리, 먹거리, 즐기거리가 가득 찬 이곳 영덕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3영덕대게 축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덕대게 축제! 완벽한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하며 높이 비상(飛上)하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김광열 영덕군수이하 수고한 군정관계자들과 박오수 대게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하 축제 추진 위원들께 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도 알찬 프로그램과 축제 준비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영덕대게 축제가 개최되기를 주문 드려 본다.

[박근중 칼럼]

해도 너무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 뒤에 숨은 함정과 복병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발표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막대한 보조금을 내건 미국이 지원 조건을 갈수록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라리 「반도체 지원법」이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 패권법」이라고 할 만큼 무리한 독소 조항투성이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빨간불이 켜지며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전전긍긍(戰戰兢兢)하며 고심이 깊어지고 긴 한숨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520억 달러(약 64조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개발>, <사회공헌 등 6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는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이다. 미국은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 중국 등 우려했던 국가와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국가안보 프로그램과의 통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반도체 시설 제공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나 같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아니라 자국 국방 관련 국유 기업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이 국내외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 대만 등 동맹국은 물론이고 미국 현지 언론까지 부작위를 지적하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실을 통해 "기업에 법에도 없는 진보(Progressive)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패권국' 부활을 꿈꾸며 내놓은 야심작이 첫발부터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초한 바나 다를 없다. 이번 기준이 산업정책인지, 외교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대선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평가다. 또한 고객·장비·원료 등 영업기밀 공개 등과 함께 10년간 대중 투자 금지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노조가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 규칙을 만들고, 어린이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만만찮은 부담까지 지게 된다.

대중국 견제라는 외교정책 목표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노동·복지 정책까지 몰아넣은 '프랑크식 좌파 정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행동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는 이미 높은 비용과 관리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앞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성 지표와

재무계획 등 내부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생산 시설까지 공개해야 한다. 특히,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전망치보다 실제 수익이 많으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는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안보 분야에 반도체를 우선 공급해야 하고, 생산과 연구 시설을 공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이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보안이 필수인 반도체 핵심 공정과 경영 기밀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등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Guardrail | 안전장치)' 조항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투자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아무리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하는 정책이지만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시장개입'이고 그대도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경쟁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연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뒤에 숨은 함정과 복병이 해도 해도 너무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의 자국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부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미국은 '자국 이익 중심' 기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족쇄가 될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보조금 규정에는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Guardrail | 안전장치)' 조항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절반 가까이 각각 중국에서 생산하는 만큼 그 파장을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크다. 중국 사업을 접을 수도, 그렇다고 미국이 구축하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탈할 수도 없는 K-반도체는 그야말로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빠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최악상황(最惡狀況)에 내몰렸다.

더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겠다는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의 자국 이기주의는 극에 달하고 있다. '조 바이든(Joe Biden)'도 결국 '점잖은 도널드 트럼프(Dignified Donald Trump)'일 뿐이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는 한국으로선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반도체 지식재산권과 생산 장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등을 질 수도 없는 진퇴유곡(進退維谷)에 빠진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극한상황(極限狀況)이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중국 시장도 모두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일이다. 반도체 산업

은 이미 민간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이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칩4(Chip4 | Fab4) 동맹'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한국이 미국에 꼭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 기술을 가진 핵심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가 있었다. 한국이 지난해 대미 최대 투자국이자 올해 미국에서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 생산시설 본국 회귀)'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덕분에 일자리가 35만 개나 새로 늘어났는데, 국가별 기여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해 8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34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생산 설비를 옮기거나 새로 지어 미국에만 일자리 3만 5,403개 창출에 공여한 뛰어난 실적이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2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SK그룹이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단행하는 경우 미국 내 일자리는 2025년까지 4,000개에서 2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공여한 데 미국 대통령도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그런 핵심 동맹국에 대한 차별적 처치는 의당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이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 2월 15일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실화하겠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포함해 전방위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라면서 미국과의 "전략·안보·경제·기술 등 분야별 고위급 전략적 소통·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보조금 조건의 예외를 인정하고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약속을 기필코 받아내야만 한다.

반도체 지원을 빌미로 기업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는 미국이다. 소재부터 장비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으로 흡수하겠다는 목표를 노골화한 것이다. 필요하면 일본 대만 등 동맹국과 공조를 통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The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으로 한국 기업이 보조금 차별을 당할 때처럼 뒷북 대응을 되풀이해선 절대 안 된다.

미국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압박도 하며,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호혜적(互惠的)인 상생(上生)으로 '윈윈(Win-Win)'하는 해법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칼럼

“일탈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문화매일윤근수지사장

오늘 필자의 칼럼은 나날이 퇴색해 가고 있는 성직자들에 중 함량미달자로 도저히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세상이 참 말세이다. 하느님을 섬기는 천주교(天主敎)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성직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에 뛰어들어 편향된 성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경악스럽게 짝이 없다.

천주교! 천주교는 천주를 믿는 종교인 가톨릭이다. 천주교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어 명칭

하느님을 받아들여 천주로 불렀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기에 천주교라고도 칭하는데, '천주교회'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신자들이 공동체이다.

한데, 이 천주교를 이끄는 성직자가 입에 담아서 안 될 살인기도를 하지 않나, 정치신부로 치달지 않나, 상식이하의 짓을 일삼고 있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필자로서는 오늘 이렇게 천주교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무엇하는 분들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최근의 일련의 잘못된 사태들에 성토하고자 한다.

지난 1월 12일, 천주교 P모신부가 SNS 합성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내외 분이 순방하는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비나이다~비나이다~"라는 글귀를 올려 전용기 추락을 기원하는 참으로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망언의 글귀를 올렸다.

이것 도대체 뭐하자는 수작인가? 명색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신부의 입에서 여찌 살인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성직자가 아닌 순세 희대의 살인마인 1982년 우대범 순경이 하룻밤에 55명을 살해한 악마의 탈을 쓴 자보다 더 심각한 희대의 살인마와 진배없는 전용기 추락 기도를 한 간첩살인 행위이다.

한데, 더욱 가관인 건, DJ교구가 이런 신부를 즉각 제명처분해도 모자랄 판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처분은 커녕 공직 미사와 고해성사 집전 등의 성무집행정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그치는 이해불가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필자는 예전 교고시절부터 26년간 기독교 생활에 몸담아 온 적이 있다. 당시, 성경말씀중에 늘 기억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이는 초당쟁도 알지내, 하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실행에 옮기는 성직자가 어떤 이런 살인마적 망발의 용서받을 수 없는 글을 SNS에 올릴 수 있는지...여찌 이런 자에 대한 처벌이 정적이란 송방망이 처분인지....

어찌 이렇고도 무슨 낮으로 하느님을 믿으라 할 수 있는지... 이에 필자는 이런 송방망이 처분한 천주교 DJ교구장 K주교의 미사어구와 변명에 불과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얘기들을 들여다 봤다.

"그는 대국민사과문에서 "P신부의 개인 SNS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와 충격에 대하여 사죄하며, P신부의 글은 분명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국민 여러분과 신자분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이 발생 즉시 P신부와 면담시 그는 무릎을 꿇고 교회와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며, "교구 사제들을 돌보고 교육하여야 하는 교구장으로서 직무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DJ교구 K주교는 "이후 P신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P신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인사 발령을 통해 P신부를 사제의 직은 유지하되 공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것은 아니다. P신부가 이런 살인기도 발언을 하였다면 사제 자격이 상실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영타리로 설파해 온 산증거!로 즉각 제명 처분만이 순리이다. 한데도 제식구 감싸기 송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결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솔직히 살인기도 성직자의 반성을 지켜 본 들, 심성이 이미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데 건져 낸들 무슨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이에 필자는 즉각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이땅의 믿음을 가진 가톨릭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님!과 동시에 성직자수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길이에, 즉각 가톨릭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응징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필자는 성직자가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에 나서서 갑자기 콩나라하면서 중립도 아닌 편향된 시각으로 정치를 논하는 성직자가 있어 이에 대한 비평을 하고자 한다.

H모 신부란 자의 일련의 움직임은 모양새를 보면, 과연 그가 성직자인지 아니면 편향된 정치가인지 참으로 이해불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민주화 원로 100여 명과 함께 지난 1월부터 기자회견과 간담회, 포럼, 특별대담 등을 통해 '검찰 독재와 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해 오면서 104돌 3·1절 1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을 열어 '이태원 참사, 윤 정부 친미·친일연방 등 심각,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 박영수 전 특별감사에 대한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수사 등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만 있다.

이런 직무무능! 국회에 합법적으로 보장된 탄핵소추권을 활용해서 그 정치검사들을 탄핵해서 제재해야 한다."면서 "모두 180석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오고 있다.

이에 필자는 먼저 묻고 싶다. 도대체 당신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직자인가? 아니면 나랏일을 좌지우지할 정치인인가?를 밝히라고.....만약 정치인이라면 정치에 관여해도 이해할 노릇이지만 그렇지 않고 성직자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가톨릭교회를 왜곡하고 옥먹이는 가톨릭 성직자 직분을 이용한 '어용 가톨릭인'이라고 밖에 평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당신이 뭘이건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무절제 정부, 검찰권·행정권 남용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국회 기능 무력화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솔직히 야당의 쪽수로 인한 법정정에 대해서는 입도 뿔긋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해 평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뭐시라...독재권력에 부여한 하던 검찰의 시대가 돼 이제는 검찰 권력을 정리해야 한다고...참으로 그대의 말은 손바닥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기 편향에 치우친 망언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잘 아는 듯 검찰을 나무라면서 그럼 지

- 성직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일탈하는 함량 미달자 - 전용기 추락 기도, 희대의 살인마 우대범 순경과 진배없어

난 시절 잘못된 그 엄청난 모습에는 어찌 입도 뿔긋하지 않았는지 되려 묻고 싶다.

도대체 지난해까지 이 나라가 어찌 돼 왔는지 눈이 있으면 보일 것이요 귀가 있으면 들릴 것인데, 어찌 그대는 그 당시에 대해선, 입에 자크를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란 지엄한 헌법적 가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현 정부에는 그러도 성도를 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작금의 그대의 하는 모습과 행동들은 성직자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될 성직자로서의 말을 쓴 정치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지나친 편협주의적 사고에 빠진 분이란 것외로는 도저히 달리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게 한다.

그리고 남북통일이라고 외치는 그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그대는 군대에 가봤는가?

그동안 북한공산집단에 퍼다 준 엄청난 돈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 머리위로 수도권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김정은 공산집단의 모습을 알기나 하는가?

그런데, 남북 평화 정신이 제일의 가치가 돼야 한다는 개념없는 말을 하고 있다. 재빨리 더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짓의 장으로 끌어 들이는 교인영색의 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건, 언어도 단이요 알고도 북한공산주의와의 평화를 주장하는 건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에 놀아 난 중북주의적 사고를 가진 것이라고 밖에 받아 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한데도 성직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는데는 신경을 써도 부족할 판에 이리도 길길이 날뛰며 나라를 구령명의로 몰아 넣으려고 하느님도 모른다.

그리고 지난 12월, 양산 펜산마을로 前 대통령을 찾아가 "국회의원들이 결집 해서 이러한 난국을 뚫어야 한다. 우리 거례와 역사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치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 문 전 대통령이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는 데 참으로 어이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럴 시간이 있었으면 성경공부 한 자라도 더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데 시간을 더 쏟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진정 그대는 성직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직자란 직분을 이용한 정치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에 필자는 이 자리를 빌어 성직자를 하려면 설교에 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발 그 성직자란 간판을 떼고 활동해, 성심을 다해 본연의 임무에 열성적인 대다수 성직자들에게 누가되는 일이 없기를 주문하는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란 물결이 들어 온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나, 이처럼 왜곡된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들을 그냥 두고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됐고,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때는 방치하다가 차츰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5천년의 역사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현 윤석열 정부에 무한 힘을 실어 주면서 이 정부가 큰 역할로 대한민국을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솟아 오를 수 있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다"란 지엄한 헌법적 가치가 보장된 자랑스런 내조국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 가고 싶다. 그렇기에 오늘 언급된 성직자를 일부로 인해 하느님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성직자분들에게 더는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성직자로서의 본분을 열망하는 활동을 해 주길 강력히 주문드린다.

이삭속 작은 기부 습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랑의열매
Korea Children's Relief Foundation

경북교육청, '학생안전 취약학교 지원사업' 추진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경북교육청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안전 취약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안전 취약학교 지원 사업'은 안전이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해 학교 내 사각지대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공간을 사전에 정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학교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감시성 강화, 접근 통제 강화, 영역성 강화 등으로 구분

한다.

올해 희망학교를 공모해 학교 환경 안전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자체 자료 등에 따른 우선 지원 필요 학교, 재개발 지역 등 10개 학교를 선정해 교당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지역사회 여건 및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 영역 명료화를 위한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관찰 시야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 조명 설치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방범창 설치 △활동성 강화를 위한 휴게공간 설치 등 학교 환경 재설계를 통해 범죄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9교, 2021년 5교, 2022년에는 8교를 지원했으며, 기존 설치교의 우수 또는 미흡 사례를 모니터링해 앞으로도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활용한 학교 환경 재설계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

력,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산군, '제19회 예산 윤봉길 전국마라톤대회' 4월 9일 개최

예산군은 중도일보와 공동으로 '제19회 예산 윤봉길 전국마라톤대회'를 오는 4월 9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마라톤 동호인이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풀코스를 제외한 하프, 10km, 5km 등 3개 종목으로 개최되며, 대회 당일인 9일 오전 9시 예산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빛꽃 명소가 잘 알려진 예산 빛꽃로를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3월 24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검색창에 '윤봉길 마라톤'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대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대회 사무국 또는 예산군체육회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하프 10km 코스는 3만원, 5km 코스는 1만5000원이며, 결제 수단은 카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하다.

체육회 관계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최근 전국적으로 떠오르는 예산 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를 비롯한 예산의 먹거리, 볼거리도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모이자 통영으로! 즐기자 경남체전!" 제62회 경상남도민체전 개최 D-100일

도민체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대회준비

빈틈없이 착착

통영시는 지난 3. 2.(목) 시청강당에서 2023. 6. 9.(금)~6. 12.(월) 4일간 통영공설운동장 등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2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통영경찰서, 통영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36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도민체전 대회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62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대회상징물 선정, 종목별 경기장 확보 및 개보수 추진상황, 시민 관심도 제고, 참여 분위기 조성, 대회 안전·의료대책, 교통대책, 환경정비, 식품위생관리 등 대회준비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경과를 보고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는 자리였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도민체전 추진 기획단 담당팀별 세부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나흘간의 짧은 대회기간이지만 18개 시·군의 선수단 및 임원진,

관람객 등 2만 여명이 넘는 많은 손님들이 통영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과 교통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영경찰서, 통영소방서 등 유관기관에도 안전과 교통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통영시를 방문할 도민들에게 많은 즐길 거리 제공과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음식점, 목욕탕 등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비롯해 불법현수막 철거 등 환경정비,

도로변 가로수 관리, 주차 및 교통대책, 공중화장실 관리, 도시시설물 정비 등 분야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도민체전은 올해 우리시 최고의 과제이고 전시민이 참여되어야 하는 만큼 전직원은 비장한 각오로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기본을 위에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심정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도민체전을 통해서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각인시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제62회 경상남도민체전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

에 따라 도민체전 분위기 조성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D-100 카운트다운 표시기를 관문사거리와 향남오거리에 설치하였으며, 도민체전 개최식은 2023년 6월 9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약속의 땅,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으로 도약하는 통영의 도시상을 표현하고 통영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 특색을 가미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 중이다.

이윤준/기자



경주농업대학, 2023년 115명 입학... 농업 전문인력 육성

오는 10월까지 3개 과정 교육진행, 지난해까지 56개 과정 2275 졸업생 배출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 지역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제17회 경주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김형철 경주농업협회소 회장 및 교육생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경주시 홍보대사인 강원석 시인의 '시와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학사보고, 입학식 축하 꽃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업대학 수강인원은 ▲귀농 귀촌 45명 ▲도시농업 40명 ▲스마트농업 30명 등 3개 과정 총 115명으로 교육은 올 10월까지 과정별 약 25회, 100~110 시간에 걸쳐 이론·실습 교육, 현장학습, 선진지 견학, 사례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된다.

특히 시는 귀농귀촌반 수강생들이 지역의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 1년 동안 배우며 현명한 작목 선정을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귀농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경주농업대학 학장인 주낙영 시장은 "농업대학이 지역 농업인 스스로 역량을 키워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겠다"라며 "올해 신설한 도시농업과 스마트농업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농업대전환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농업대학은 지난 2007년 개설 이래 지난해까지 56개 과정, 2275명의 졸업했다.

윤태용/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